이투데이

ECONOMY TODAY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etoday.co.kr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제2263호

'장애인 고용' 약속 지킨 최태원 🛭



김승연 "안전 최우선"…방산공장 자동화 ᠑

2122.45(-18.47P) **661.85**(-3.29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167.80(+7.00원) 1.510% (-0.054%P)

서울 직원 200명, 포항·광양 배치

최정우의 '현장경영'

내년 1월 조직개편 때 인력 이동 올 2월 300여 명 이어 두 번째

포스코가 내년 1월 초 예정된 조직개편 에서 서울 일부 직원들의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전환 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 인다. 2월에 이어 두 번째 현장 배치로 인 원은 2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정우〈사진〉 포스코 회장의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이동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 난해와 달리 올해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 을 각각 12월, 내년 1월 초에 별도로 진행 한다.

포스코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울 직원들의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배치가 함께 이뤄질 가 능성이 크다"며 "1회차(300여 명)보다는 이동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 했다. 또 다른 포스코 관계자도 "이번 배치 는 올 초 대규모 이동이 이뤄졌을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향후 사업장 간 인력 이동이 몇 차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서울 근무자 중 현장과 밀접한 부서의 생산 현



장(제철소) 전환 배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 조해왔다. 현장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신속 정확하 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자는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100대 개혁과제 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현장 업무 강화 와 지역 경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서울 에 있는 조직 중 현장과 긴밀한 협조가 필 요한 부서는 포항과 광양으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조직개편과 임·직원 인 시를 통해 서울 근무 인원 1500여 명 중 300여 명을 포항(약 250명)과 광양(약 60 명)에 배치를 결정했다. 올 1월엔 서울센터 핵심 부서인 HR혁신실을 인사문화실로 명 칭을 변경한 뒤 포항 본사로 이전했다. 이어 철강생산전략실, 기술전략실, 글로벌품질서 비스실, 정보기획실 등의 직원들도 차례로 자리를 옮겨 2월 배치 작업이 마무리됐다.

임원인사 역시 1~2개월 앞당겨질 가능 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그동 안 1~2월에 임원인사를 진행해왔지만 최 정우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1개월가량 당겨진 12월에 임원인사를 단 행한 바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60세 → 55세〉

가입 문턱 낮춘 주택연금 6억 주택 月86만원 수령

혁신성장·기업환경 개선 방안

공시가 9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 화학물질 심사기간 60일로 단축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 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화학물질 관 련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 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개선하는 규 제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5건, 금융 6건, 공공부문 4건, 현장 여건 3건 등 모두 18 건이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 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시가 9억 원 으로 현실화한다. 60세 가입자가 6억 원짜 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매달 119만 원을 받지만, 55세에 가입하 면 86만8000원을 수령한다.〈본지 11월 5 일자 1면 '6억 주택연금…' 기사 참조〉

기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화학물

질 등록·관리 관련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화학물질 관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 일로 단축한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업종 별 전담심사팀을 구성·운영하며 온라인 서 류 제출도 허용한다. 온라인 서류 제출 시 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에 착수 한다.

유해 화학물질 대표자・임원 변경 시 기 존엔 모든 등기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를 개선해 변경 되는 대표자・임원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자기자본 대비 총 자산(레버리 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어려웠던 카드 사의 신산업 추진을 위해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빅데이터 신산업 관련 자산 및 중 금리 대출을 총 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

또 증권사의 혁신기업 투자 확산을 위해 초대형 IB 발행 어음 조달 한도 산정 시 혁 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빼기로 했다.

혁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제 품의 의무구매비율은 10%에서 15%로 올 린다. 이밖에 민원 및 위생·안전위해가 없 는경우식약처장•지자체장이정하는장소 를 제외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간접거래 부당지원'도 제재한다는 공정위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익편취 지침안' 행정예고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 원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서 제재 ▶관련기사 4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동인일 및 친족)에 대한 부당 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지침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 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사 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으로 하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 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 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 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안에 는 효성 사익편취 건 등과 관련된 최근 심 결레, 판레 등을 바탕으로 '이익 제공 행 위'가 제공 주체(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객체(특수관계인 회사) 사이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가령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 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 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

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의 판 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지침안은 자산・상품・용역 거 래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제시했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 거래 의 시익편취 적용 제외 기준도 구체화했다. 긴급성의 경우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 조치 등을 사익편취 적용 예외 사례 로 규정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오늘 수능 한파…"따뜻하게 입으세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들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수능일인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 인천 -1 도, 광명 -2도, 철원 -6도, 춘천 -4도 등 '수능한피'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오전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따뜻 한 옷차림으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DI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주문

'물가 하락 선제 대응' 강조…올 성장률 2%로 낮춰

내년은 2.3%로 낙관적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민간 연구 기관들과 비교해선 낙관적 전망치다. KDI 는 또 내년 상반기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 리 추가 인하를 권고했다. ▶관련기사 4면

KDI는 1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 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각각 2.0%,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 반기(5월)와 비교해선 전망치를 각각 0.4%포인트(P), 0.2%P 하향 조정했다.

부문별로 올해 총소비는 전년보다 3.1% 증가하지만, 총 고정투자는 설비투자(-7.0%)와 건설투자(-4.1%) 동반 부진에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수출은 물량이 1.0% 늘지만, 금액은 9.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단가 하락이 수출 액 감소의 주된 배경이다. 여기에 서비스 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지난해 764억 달러에서 575억 달러로 축소될 전 망이다.

2.0%도 다른 기관들에 비해선 후한 평 가다. 앞서 LG경제연구원과 한국투자증 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8%로 제시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9%로 전망했다.

KDI는 상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설 비투자가 기저효과와 기업 투자 확대에 힘 입어 4분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 다. 2.0% 성장률 전망도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엔 성장률이 2.3%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총 소비 증가율은 3.1%로 유지되지만 설비투자(8.0%)가 반등하면서 총 고정투자는 올해보다 1.6% 증가가 예상된다. 총 수출도 물량은 3.2%, 금액은 4.0%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수입액이 함께 증가하고, 서비



고이란 기자 photoeran@

스수지는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589억 달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 을 기록할 전망이다.

성장률 회복 요인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올해 투자・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김 성태〈사진 오른쪽〉 KDI 경제전망실장은 "(수출은) 올해 마이너스 요인 중에 가장 큰게 반도체 단가 하락이었는데, 기저효과 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규철(왼쪽) 전망총괄 연구위원은 "통 화정책에는 시차가 있다. 바로 경제에 반영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더 떨어지 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장애인 고용' 약속 지킨 최태원… 훈훈한 '채용 릴레이'

〈SK그룹 회장〉

하이닉스, 장애인 사업장 '행복모아' 100여 명 신규 채용 이천·청주 사업장 장애인 간호사·물리치료사 선발 계획 ㈜SK·이노베이션·실트론도…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

SK하이닉스가 사회적 가치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뽑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SK하이닉스 의 장애인 직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28일까지 이천, 청주 사업장에서 일할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이점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인적성 검사, 면접을 통해 입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애인은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업

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장애인 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8일까지 이천 사업장에서 근무할 장애인 물리치료사도 모집하고 있다. 채용된 물리 치료사 또한 업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이자 장애인 표준 사업장인 행복모아 또한 장애인 채용을 늘 리고 있다.

기존 주업이었던 방진복 세탁업을 넘어 제과·제빵 사업을 하기 위해 직원 모집을 했다.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약 100여명의 장애인은 제빵, 포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월 28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소셜밸류커넥트 2019 (Social Value Connect 2019)' 행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장애인 채용 규모 는소폭줄기도 했다. SK하이닉스 지속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직원 수(국 내, 중국 우시 기준)는 124명으로, 2016년 (132명)과 비교했을 때 8명 줄였다.

하지만 최 회장의 의지에 따라 SK하이 닉스는 장애인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올해 5월에 열린 '소셜밸류커 넥트(SOVAC) 2019'에서 그동안장애인 고용 비율을 준수했냐는 지적에 대해 "열 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왜 안 됐는지 모르 겠다"며 "안 되면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 회장의 발언 이후 그룹 계열사인 ㈜ SK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장애인 26 명, 25명을 고용했다.

SK실트론은 10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채움을 본격 운영했다. 행복채움에 고 용된 약 22명의 장애인은 세탁물 대행, 명 함 제작 및 인쇄 등을 수행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해 행복모 아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 자리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 용에 계속 신경 쓰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 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학벌보다 능력"… '스카이' 출신 CEO 30%대 무너졌다

1000대 기업 CEO 분석

국내 10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중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 대 학'출신의 비율이 올해 처음 30% 이하 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이공계 출신 CEO는 절반을 넘어섰다.

13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 코써치가 발표한 '2019년 국내 1000대 기업 CEO 출신 대학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조사 대상 기업에 소속된 CEO는 총 1328명이었다. 이 중 서울대・연세대・ 고려대 출신은 391명(29.4%)으로 나타 나다

대상 기업은 상장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했고, CEO는 반기보고서 기준

서울·고려·연세대 29.4% 서울대 15.2%로 가장 많아 이공계 출신 첫 50%대 '돌풍' 경영학 전공 21.5%로 최다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는 인물로 제한 해 조사했다.

세 대학교 중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202명(15.2%)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가 101명(7.6%), 고려대가 88명(6.6%)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 출신이 연세대와 고려대를 졸업한 CEO 숫자의합보다 더 많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됐다. SKY 출신 CEO 비율은 2007년

59.7%에서 2010년 43.8%, 2013년 39.5%로 하락하다 올해 처음으로 30% 대 아래로 내려갔다.

SKY 출신 CEO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960년대 초반생이 1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50년대 후반생이 14.8%, 1960년대 중반층은 13%로 나타 났다. 3개 대학 출신 다음으로는 한양 대가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38명 △중앙대 31명 △부산대 30명 △ 한국외대 28명 △인하대 27명 △서강대 25명 순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학교 중에서는 부산 대출신이가장 많았고, 영남대(23명)와 경북대(22명)도 각각 20명 이상의 CEO를 배출했다. 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과거에는 명문대 출신이 실력도 있고 인맥이 두터 워 유능한 인재라는 등식이 강했지만 최 근 재계는 학벌보다 능력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로 무게중심이 크게 이동되는 추 세"라며 "능력 중심의 다양한 인재 선발 시스템이 정교하게 안착할 경우 출신 학 교보다는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재가 크 게 주목받는 문화가 지금보다 더욱 빠르 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이공계 출신의 돌풍도 주목을 받았다. 2010년 조사 당시 43% 수준이던 이공계 출신 CEO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51.6%를 기록했다. CEO 2명 중 1명은 이공계 출신인 셈이다.

연도별 SKY대 출신 CEO 비율 현황

(단위: %, 1000대 기업 모집단 기준) *2007년은 500대 기업 기준

43.8 40.5 29.4 2007년 2010년 2012년 2019년

※출처: 유니코써치

이공계 CEO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CEO가 전공한 학과는 여전히 경영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조사된 경영학과 출신 CEO는 21.5%였다. 경영학 다음으로는 △기계공학(6.8%) △전자공학(6.7%) △경제학(6.1%) △화학공학(5.4%) △법학(3.7%) 등의 전공이 뒤를 이었다.

유창욱 기자 woogi@



〈조정대상지역 해제〉

'성급한 규제완화' 들썩이던 부산 집값에 '기름'

구멍난 국토부 모니터링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 주택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넘쳐나면서 매도 호가(집 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치솟고 있다. 집값 이 안정세를 보여 더는 규제를 하지 않아 도 된다는 정부의 판단과 완전히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8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부산 해운대 ·수영구 등지의 주택시장이 규제 해제 이전 부터 들썩였다는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을 감안했을 때 국토부의 주택시장 모니터링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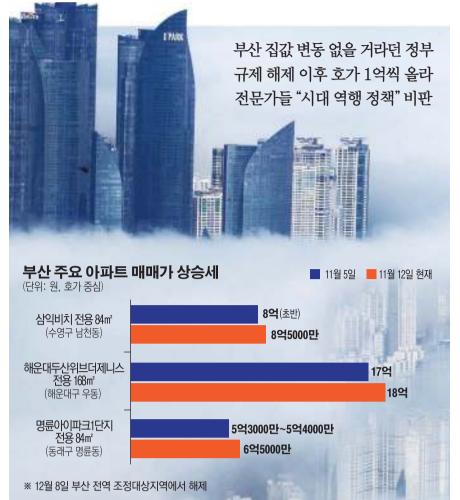
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명륜아이파크1단지 전용면적 84㎡는 6억5000만 원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일주일 새 호가가 1억 원넘게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부산 수영·동래·해운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 표했고, 그 효력은 8일부터 발생했다.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 전용 84㎡짜리 매물도이달 초 8억 원대 초반에 거래됐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호가가 8억5000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해운대구우동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68㎡은 시세가 18억 원 선으로 한 달 전보다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부산 수영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 이전부 터 이미 아파트값 상승 조짐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규제 해제 발표는 안 됐지만 규제



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달 라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영구 남천동 A 공인 관계자는 "삼익비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부터 전국에서 매입 문의가 많았다"며 "정부의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래구 명륜동 한 공인중개사도 "명륜아

이파크1단지는 원래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나오는 매물이 없고, 저층 매물도 한 달 새 5000만 원 정도 올랐다" 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전부터 매물을 거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급하게 매수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6일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 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1년 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하 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였다. 국토부에서 제 시한 주택가격 변동률은 동래구 -2.44%, 수영구 -1.10%, 해운대구 -3.51%다.

국토부의판단대로라면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에도 집값은 큰 변동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가 해제되자마자 시장이 달아오르는 것은 이미 투자 수요가 매매시 장에 상당 부분 진입했거나 발을 담글 준 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표면적인 수치에만 의존한 국토부의 모 니터링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 규제 해제는 시장이 워낙 침체해서 족쇄를 풀어주는 것인데, 규제가 풀리자마자 돈이 몰리고 집값이 들썩이는 것은 정상적인 시 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 원은 "답보 상태에 빠진 물가상승률을 조 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 용 기준으로 삼는 것부터 개선해야 할 점 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 제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억 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票心)을 챙기기 위해 부산 지 역을 부동산 규제에서 해제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부산은 선거 전략상 여당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곳인 만큼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은 '오비이락'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데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게) 완전히 소설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규제 사각지대' 대전



집값 치솟는데 뒷짐진 정부 "규제 좀 나서달라" 청원까지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초쯤되면 아파트값 이 3.3㎡당 3000만 원까지 오를 것 같습니 다."(대전 유성구 한 공인중개사)

정부 규제를 피한 대전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최근 걷잡을 수 없이 치솟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4.38% 올랐 다.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유성 (6.45%)·서(5.13%)·중구(5.10%) 등 3 개 자치구는 전국 시·군·구 기준 상승률 1 ~3위에 올랐다.

집값이 거침없이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 권에도 꽤 많은 웃돈이 붙었다. 대전 유성 구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145.40㎡ 분양권은 이탈 초 13억 원가량 에 거래됐는데, 이는 분양가보다 4억 원가 량 오른 것이다. 인근 I공인 관계자는 "3월 분양한 아이파크시티의 경우 3.3㎡당 1500만 원에 공급됐는데 벌써 2500만 원 대까지 올라섰다"며 "집값 상승폭이 워낙 커 얼마까지 더 오를지 가늠할 수 없는 지 경"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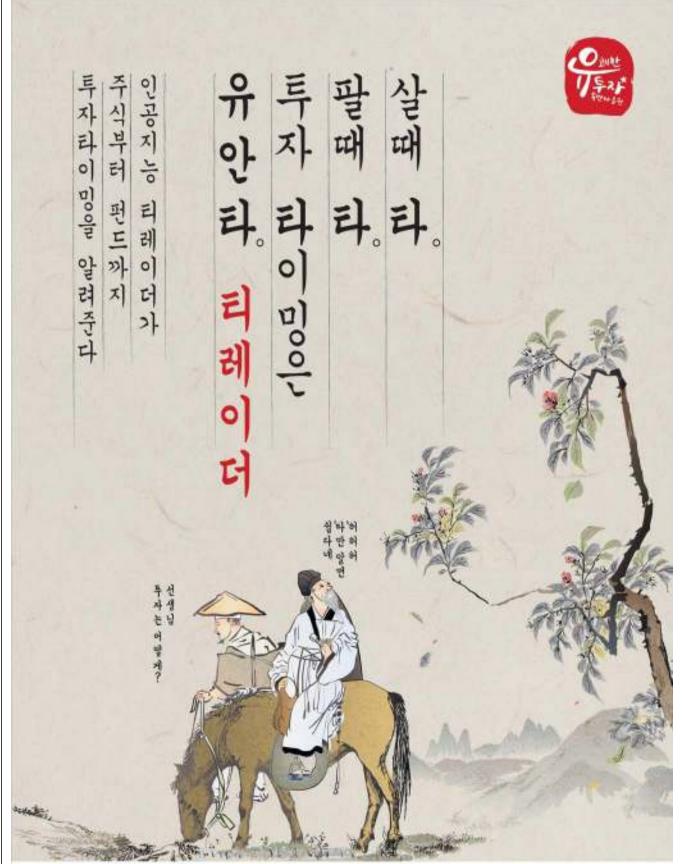
대전 집값 상승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

부장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면 대전 집값이 이 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분 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 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신축 단지 집값 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6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면서 대전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것이란 관측이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대전을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당시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규제 지역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대전 유성구 등에 대한 규제 안건이 있었지만 주정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진않았다"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으로 국한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집값 폭등'을 규제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올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에는 대전 지역민들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마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에메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례에며, 퇴례에더랜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의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실사필 제19~62호(2019.02.28)

노인 빼면 취업자 2000명 ↑…경제허리 3040 '휘청'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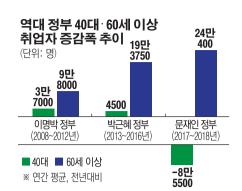
지난달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30만 명 대 이상 증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인 취 업자 증가 폭을 제외하면 취업자 증가는 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 중심축인 40대 취업자 수가 제조업 부진 등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눈 에 띄는 점은 문재인 정부 들어 40대 취업 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0만9000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 증가했다. 8월(45만2000명), 9월(34만 8999명)에 이어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60세 이상 전년比 41만명 늘 때 30대 5만명·40대 14.6만명 줄어 제조업·건설업 고용 감소 영향 文정부 들어 40대 줄고 노인 증가

이 수치만 보면 고용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질적으로는 악화된 모습이다. 연령별로 보면 지 난달 15~29세 취업자 수는 399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 명이 늘었다. 50~59세취업자 수(650만2000명)도 10만8000명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499만6000명)수는 전년보다 무려 41만7000명증가했다. 반면에 경제 중심축인 30~39세



(551만5000명)와 40~49세(649만9000명)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5만명, 14만6000명줄었다. 60세이상취업자증기를 빼면취업자증가수는 2000명에불과한 것이다. 연령별고용률의 경우 40~49세(78.5%·0.6%P↓)만감소했다.

이처럼 유난히 40대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을 비롯한 건설업, 도소매업 고용이 감소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제조업취업자는 수출과 투자 부진 등으로 8만1000명 줄어1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와함께 재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들어취업 규모가 준 것도 40대취업자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대로 60세 이상인 노인 취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 로 풀이된다.

40대 취업이 줄고, 노인 취업이 크게 늘 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60세 이상취업자 평균 증가 폭은 9만8000명이며 40대 증가 폭도 3만7000명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도 전 정권보다 줄긴 했지만 60세 이상(19만3750명↑)과 40대(4500명↑)취업자가 플러스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들어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24만400명으로 이명박정부보다 2배더늘었다. 반면에 40대의 경우 8만5500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과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성장동력 확충 등 정책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종=서병곤기자 sbg1219@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최정우 한호경협위 위원장(포스코 회장)이 1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40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백순 주호주한국대사, 알란핀켈 호주 연방수석과학자, 최 위원장, 사이먼 크린 위원장, 문재도 H2KOREA 회장,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

총수家 '사익편취 기준' 강화…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제3자와 간접거래 심사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수출규제나 천 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일시적 으로 풀어주는 내용의 세부 지침을 마련했 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제 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사익 편취 판단기준을 강화했다.

13일 공정위가 내놓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 안(이하지침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제 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사익편취 행위 요건으로 명시 했다는 점이다. 가령 효성의 사례처럼 금 융상품을 제3자에게 인수하도록 한 뒤 제 3자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경우 공정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효성은 2014년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총수 일가 회사(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거액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있도록 인수자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이 강회된 지침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내 부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침안을 마련한 것은 현행 규정의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대기업집단계열사들이 불법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공정위의 타 기업에 대한 일감개방 유도에도 불구하고 느는 추세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6년 152조5000억 원 에서 2018년 198조6000억 원으로 확대됐 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에는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만큼 향후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줄고이에 따라 내부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침안 효과가 크지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지분 매각 등으로 사각지대 회사로 전환하고, 이들 회사를 통한 내부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세계 경제 후퇴하는데… 장밋빛 전망 내놓은 KDI

"신흥국 회복세…국내 설비투자 4분기부터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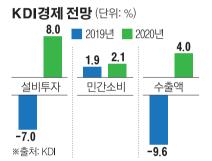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2.0%, 내년 2.3%라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0%에서 내년 3.4%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 복세에 힘입어 수출액이 늘면 국내 설 비투자도 늘고, 전반적인 경기도 개선 된다는 것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전망에 대해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 진으로 이어지고, 제조업 부진이 민간 소비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좀 낮아졌다"며 "근본적 인 원인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특히 미·중 무역갈등 등 이슈가 2분기와 3 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단 4분기 들어선 투자 부진이 소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 인데,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상당히 큰 부진을 보였다"며 "3분기 들어서 마이 너스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4분기 에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축소될 것 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엔 성장률이 2.3%로 소폭 개선 될 전망이다.



성장률 회복의 가장 큰 요인은 신흥 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올해 투자·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이는 올해 4분기 지표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내년에는 3.4%로 예상되고 있는데,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하지만 않는다면 3.0%에서 3.4% 정도로올라가는 모멘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은) 올해 마이너스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반도체 단가 하락이 었는데,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 상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근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내외를 기록하고있으며, 향후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목표인 2.0%까지 단시일 내에 반등하기는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기자 iye@

조세·연금 빠진 '복지지출 확대 전략'

기재부 "국민연금은 국회서, 증세는 세제실서 검토 중"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정부가 13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중 하나로 발표한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 략'에선 재정 확충 방안이 빠졌다. 국민부 담률 상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2020년 예정된 장기재정전망에 올해부터 착수하고, 추계 모델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 국가재 정운용계획을 연계해 우리의 재정·경제 여 건에 맞는 재정건전성 프레임워크 (framework)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 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책은 제 시하지 않았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국민 건강보험료의 10.25%로 올해(8.51%)보 다 1.74%포인트(P)(20.4%) 인상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으 나,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기의결된 사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책에 담았다"며 "국민연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다른 채널에서 논의돼 현재 국회에 개혁안이 가 있고, 세입 확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추가, 조세감면 축소 등 여러 방법을 놓고 세제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다 보니 모든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 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세입 확충방안은 단기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전, 3분기 영업익 1.2조…4분기 만에 흑자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만에 적자의 늪을 빠져나왔다. 여름철 전기 사용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15조9122억 원에 영업이익 1조2392억 원 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6억 원, 영업이익은 1560억 원 줄어든 실적이다. 올해 $1\sim3$ 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 44조 2316억 원에 영업이익 3107억 원을 기록했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9323억 원 적자다.

앞서 한전은 작년 4분기 7885억 원, 올 해 1분기 6299억 원, 2분기 2986억 원 등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3분기는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이라 계절적으로 실

적이 가장 좋은 분기다.

한전은 3분기 실적 개선 요인에 대해 "타 계절에 비해 3분기에 상대적으로 판매 단가가 상승하고 판매량이 증가했으며 국 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발전용 액화천연가 스(LNG)가격 하락 등으로 발전 자회사 의 연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연료 가격 하락과 함께 올해 5월 LNG 세제 개편((91원→23원/kg) 효과 에 따른 발전자회사의 연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4억 원 줄었다.

전기판매수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925억 원 줄었다. 지난해 여름철과 비교 해 폭염일수가 준 영향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청년표심 잡자"…민주당 '청년신도시' 카드 만지작

주거·보육·일자리 등 '한곳에' …임대 공급으로 자금부담 덜어 3기 신도시 일부 전환 가능성…모병제 이은 '양정철표' 공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숙 제'로 여겨지는 청년층 '표심 잡기'의 일환 으로 분석된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청년신도시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새 아파트 일부 물량을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 화해 공급하는 '단순 공급'에서 벗어나 청 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는 물론 출산, 육 아까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포괄적 신도 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청년 신도시'는 비 슷한 '필요'를 느끼는 계층·세대를 위한 도 시 공간을 조성해 주거·육아·일자리 등과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구상은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 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회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우선 도시 내 주택은 '소유'가 아닌 실제 '거주'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 다. 분양이 아닌 임대 중심으로 주택을 공 급해 자금 조달의 부담을 덜고 충분한 주 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이다. 20~30대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 등 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 다양한 '파격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내 보육 서비스 기능도 기존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풍족하게 갖추고, 맞벌이 부부 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 역시 충분히 마련 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거와 출산·육아 외에도 도시 내 청년들의 창업 지원 시설을 갖추는 등 일 자리 관련 지원책도 함께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다

청년신도시의 입지는 3기 신도시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기 신도시는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가 중요시하는 '직주 근접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화될 경우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민간·공공임대 방식을 병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청년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와이파이 확대' 공약 마련도 검토 중이다. 단순히 공공장소에 한정된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와 같은 공약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 '모병제 카드'를 꺼내 들었던 양 원장의 '2·3호 공약'이 되는 셈이다. 민주연구원과 정책위는 이런 대형 정책 공약을다듬어 이르면 연내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이해찬 "비메모리 반도체 키워 克日"

청주서 현장 최고위 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미래 전망이 큰 비메모리 분야 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시스템반도체 업체인 주식회 사 네패스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실제로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경기 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일본이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바람에 당에서도 특별대책 위를 만들어 당정 협의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3가지 품

목은 잘 대응한 걸로 보인다. 불산의 경우자립했고, 나머지는 일본 입장에 서도 수출을 안 하면 우리나라 말고는 판로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수출해 큰 위기를 극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훨씬 더 소재, 부품, 장비 쪽을 많이 강화해야 할 걸로 보인다. 반도 체 R&D 예산은 2조 원이 넘는다. 민 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 라고 극일자강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국내가 반도체 중 메모리 분야는 1위로 압도적 점유율을 갖지 만, 비메모리 분야는 사실은 이제 시 작하는 단계다"면서 "반면 부가가치 면에서는 비메모리 분야가 높고, 삼성 전자도 100조 원을 투자했다"며 비메 모리 분야 성장 잠재 가능성을 시사했

다. 청주=이꽃들 기자 flowerslee@



'패트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 출석하며 취재진을 항해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연합뉴스

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입당 김용진 "총선서 이천 출마"

〈전 기재부 차관〉

與, 경제관료 영입 박차

김용진〈사진〉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 당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 을 들이고 있는 '경제관료 영입'의 신호탄 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은 13일 국회에서 김학민 순 천향대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과 함께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경기 이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예산국 회 당시 '한부모 가정 돌봄예산'을 삭감하 려는 야당 의원에게 "아이가 나중에 고아 원에 가게 된다"며 눈물을 보인 일로 주목 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입당식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통 경제관료'인 김 전 차관의 전진배치 다. 민주당은 당의 경제정책 역량을 높이 고 야당의 경제정책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관료 영입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중에는 경제부처 고위직 출신 인사가 자유한국당보다 현저히 적다.

경제관료 중에서도 장차관급 고위직 출신은 한국당에 몰려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격론이 있을 때 '무게 중심'이 맞지 않는 인상을 주는 일도 적



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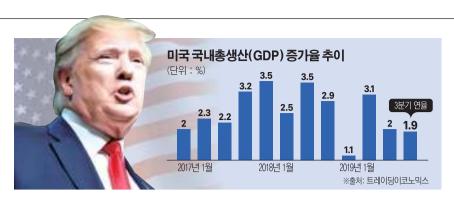
민주당의영입명단에는 김 전 차관 외에도 여러 경제관료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린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

수장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여야 공통 '영입 1순위'다. 본인은 총선 출마에 부정 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러 브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 가지다. 홍 부총리가 수차례 "출마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취약 지역인 강 원 춘천 출신이라는 점에서 출마설이 끊이 지 않는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고향 인 강원 강릉이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에 서 출마설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 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각각 출신지인 광주와 대구에서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또 는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이날 입당식은 '험지 출마자' 를 조기에 확정한다는 의미도 컸다. 김 전 차관의 고향인 경기 이천은 2000년 이후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곳이다. 김학민 교수(충남 홍성), 황인성 전 수석(경남사천)의 출마 예정지도 한국당 강세 지역이다. 유충현기자 lamuziq@





성과 목마른 트럼프 남탓하며 '자화자찬'

"1단계 결렬시 對中 관세 폭탄" 연준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압박 "한미FTA도 내가 바로잡았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임기 말년에 들어선 트럼프는 남은 기간이 내 년 대선에서 재임에 성공하는 토대가 될 지 아니면 단임 대통령에 그칠지 중대한 기로에서 있다. 뉴욕타임스(NYT)는이 때문에 트럼프가 성과에 목말라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진

트럼프는 이날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최대한 강조하는 한편 최근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부작용은 애써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 해 새로운 언급이 나오기를 고대했지만,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강 경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1단계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 조만 간 협상 타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만 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산 제품에 매우 큰 규모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는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 에도 적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현재 많은 나라가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내 려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서도 이자를 받고 있다"며 "나에게 그런 돈을 달라. 나 도 그런 돈을 받고 싶다"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연준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경쟁 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와 마이 너스 금리를 언급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 도한 것이라고 봤다. 자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중국과 연준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연준이 (기 준금리 인하에) 주저하지 않았다면 뉴욕 증시는 지금보다 25% 더 올랐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건전성 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종을 울렸다. 미 국 핵심 농업지대와 제조업체들은 무역 전쟁 충격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 원의 탄핵 조사에 직면, 13일과 15일 열리 는 공개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민 주당은 사악한 거짓말과 망상적인 마녀사 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청문회는 절 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을 언급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 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직전 정 부는 한미 FTA 합의로 25만 개 일자리 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맞았 지만, 불행히도 그 일자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갔다"며 그는 자신이 한미 FTA 개정으로 상황을 바로잡았다고 주 장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獨 베를린, 새 '전기차 메카' 부상

테슬라, 유럽 첫 기가팩토리 건설…다임러·BMW 등과 경쟁

독일 베를린이 전기자동차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전기차업체 테슬라가 12일(현지 시간) 베를린에 유럽 최초의 전기차 생 산기지와 엔지니어링·디자인센터를 건 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영국 파이 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는 이날 독일 주간지 빌트가 수 여하는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시상 식에 참석해 유럽 첫 기가팩토리와 엔지 니어링 ·디자인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에서 이르면 2021년 '모델 3'와 '모델Y'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전했다. 새 공장이 들어설 곳은 베를 린 남동쪽에 건설 중인 신공항 근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기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 리몬트 공장과 네바다주 리오의 기가팩 토리, 지난달 시험 생산을 시작한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이어 독일 수도 베 틀린에 유럽 전초기지를 세우면서 미국

과 중국, 유럽 등 글로벌 3극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자사의 유일한 완 성차 생산 거점이었던 프리몬트 공장에 서 모든 전기차를 조립, 전 세계에 수출 해왔다. 그러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계속 확 대될 것으로 보고 해외 공장 건설을 서 둘러왔다. 이들 주요 시장에서 현지 생 산에 나서면 미국-중국, 또는 미국-유럽 연합(EU)의 무역 마찰 영향도 받지 않 게 된다.

머스크는 여러 차례 유럽에 기가팩토 리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이날 처음으로 공장이 들어설 곳을 확정지었 다. 그는 "독일의 엔지니어링 역량은 뛰 어나다"며 "이것이 우리가 기가팩토리 유럽을 독일에 건설하는 이유 중 하나" 라고 말했다. 그는 또 "EU 탈퇴인 브렉 시트 불확실성이 있어 영국은 기가팩토 리 입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

베를린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 를 통해 유럽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



12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빌트의 '골든 스 티어링 휠 어워드' 시상식에서 일론 머스크 테 슬라 CEO가 베를린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을 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스 중심지'라는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독일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는 베를린이 아니었다.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볼프스부르크는 베를린에 서 서쪽으로 228km, 다임러와 포르쉐 본사 소재지인 슈투트가르트는 남서쪽 으로 623km 각각 떨어져 있다.

그러나전기자동차와자율주행차량이 라는 자동차 산업의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베를린도 뜨고 있다. 다임러 와 BMW가 올해 3월 세운 새 모빌리티 서비스 합작벤처는 베를린에 본사를 두 고 있다. 폭스바겐의 차량공유 서비스 자회사 모이아(Moia)도 베를린을 근거 지로 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의 대통령궁에서 12일(현지시간) 야당 사회민주주의운동 소속 자니네 '무주공산' 볼리비아 '어부지리' 대통령 아녜스(가운데) 상원 부의장이 대통령 띠를 두르고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에보 모랄 레스 전 대통령이 대선 부정 시비 속에 전격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기자 아녜스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 섰다. 볼리비아는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과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권한을 이어받게 돼 있는데, 이들 모두 사임하면서 아녜스가 임시 대통령 자 리를 차지하게 됐다. 라파스/AP연합뉴스

美 최대 우유업체 '딘푸즈' 파산보호신청

"우유소비 감소로 경영악화"

미국 최대 유가공업체 딘푸즈가 우유 소 비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딘푸즈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파산 법 11조(챕터 11)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 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딘푸즈의 자 산과 부채 총액은 각각 100억 달러(약 11조 원)였다. 딘푸즈는 회생 절차에 필요한 8억 5000만 달러의 운영 자금을 라보방크가 주도 하는 채권단으로부터 DIP파이낸싱(Debt in Possession Financing) 방식으로 지원받기 로 했다며 법원 승인을 요청했다.

에릭 베링거스 딘푸즈 최고경영자(CEO) 는 "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 력했음에도 우유 소비 감소가 지속되면서 감 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파산보호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1925년 설립된 딘푸즈는 지역 유가공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현재 미국 29개 주에 60개의 공장을 두고 레스토랑과 슈 퍼마켓, 학교 등에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고객이었던 월마트를 잃은 후 최

미국 우유 소비 추이



근 5개 분기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난이 심해졌다. 2018년 매출은 10년 전 대비 38% 감 소한 78억 달러였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의 우유 소비량은 최근 급격히 줄고 있 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인 1인 당 우유 소비량은 연간 146파운드(약 66kg) 로 나타났다.

딘푸즈는 실적이 안 좋은 공장을 폐쇄하고 3월에는 2만3000명이던 인력도 1만5000명 으로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섰지만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딘푸즈는 현재 낙농업자 협동조합인 '데어 리 파머스 오브 아메리카(DFA·Dairy Farmers Of America)'와 자산 매각 협의 를 진행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리브라' 제동 걸린 페이스북 '페북페이'로 핀테크 돌파구

인스타・왓츠앱서도 사용 가능한 새 결제 서비스 공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새 로운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페이'를 이 번 주 미국에서 시작한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페 이스북은 이날 자사 블로그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앞으로 새 결제 서비스인 페 이스북페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다른 사 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고 상품・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용카드와 직불카드, 페이팔과 연동해 사 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광고 의존도를 낮 추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물색, 결제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을 방침이었 다. 6월 발표한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 가 규제 당국 등의 반발로 출시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기존 결제 시스템을 활용

한 구조를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메신저' 앱을 통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페이스 북페이를 이용하면 인스타그램과 왓츠 앱 등 페이스북 산하의 다른 앱들까지 넘나들며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된 다. 이용자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등록 하기만 하면 앱 내에서 이용자 간 송금 과 물품·서비스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 일부 앱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대상 지역과 앱을 확장한 다는 방침이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은 이미 우리의 앱을 통해 상점에서 결제를 하고 돈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페이스북페이는 결 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더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







페이스북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페 이'로 송금을 시연한 화면. 페이스북

다.

CNBC는 페이스북페이 출시로 페이 스북이 목표로 하는 자사 앱 간의 연결 강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 다. 반면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 가 반독점 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2007년 결제 서비스를 시 작했지만, 올 3분기(7~9월) '결제·기 타' 매출은 2억69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전체의 2%도 안 되는 수준이다. 주 력인 인터넷 광고는 이용자 정보를 활용 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수익원 확대가 과제가 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BOX의 12가지 솔루션

출 | 온라인 완결형 대출 지원

정 책 자 금 | 정책자금 정보 제공 및 맞춤 추천

판로 개척 비해외바이어 매칭, 해외기업 정보제공

기 업 부 동 산 | 기업부동산 실거래, 매물정보 제공

쇼 핑 몰 관 리 □ 온라인셀러의 주문/매출 관리

생산자네트워크 | 아이디어 보유기업과 공장 연결

용 | 구인구직 등록 및 채용정보 제공

세 금 계 산 서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결제

거래처모니터링 | 거래처 리스크 예측정보 제공

육 | 기업 임직원 맞춤형 교육 지원 亚

자 재 구 매 기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4935호(2019.10.07) 유효기한(2020.10.03)ㆍ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손보사, 신규 계약시 '6개월 내 중복가입' 점검 의무화

내일 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오픈 설계사 과당경쟁 사전 차단

손해보험 업계가 신규 보험계약 시 직 전 6개월 내 소멸계약 비교를 의무화한 다. 보험설계사 이동이 잦아지고 영업 경 쟁이 심화하면서 불거진 중복가입, 부당 승환계약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 손해보험사 는 15일 '계약정보비교 안내 시스템'을 오 픈한다. 신용정보원 정보를 이용해 보험계 약 과정에서 계약자의 기존 계약 가입 여 부를 확인, 보험 계약자에게 유사한 계약 이 있는지 비교해주는 게 핵심이다.

계약자가 기존 가입 계약을 인지하지 못 한 채 신규 계약을 체결해 중복가입, 승환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손해보험협회



가 고안한 방법이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한 후 기존 상품과 비슷한 계약 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97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 전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고지의 무 불이행한 경우를 승환계약으로 간주

앞으로 손해보험 계약 체결 땐 당사계약 은 현재 정상 계약과 직전 6개월 내 소멸계 약 상품을 비교 안내해야 한다. 타사 계약 은 직전 6개월 내 소멸계약과 향후 6개월 내 소멸 예정계약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타사 계약 중 신용정보원이 제공하지 않는 정보(환급금, 공시이율, 보험 목적, 면책 사항)는 설계사가 고객에게 확인 후 수기 로 입력해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타사 계약 정보는 100% 고객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설계할 수 없었다"며 "비교 안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확한 타사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불완전 한 승환계약 유입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 '몰라서 비교 설 명을 못했다'는 소명은 통하지 않게 됐다" 며 "최근 손보업계는 과당경쟁 근절을 위 한 자율결의 등 자정 노력에 힘쓰는 분위 기"라고 말했다. 설계사가 타사 계약 중소 멸 예정계약이나 비교 설명을 누락한 경우 에는 보험업법 위반, 협회 비교안내 제재 심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생명보험 업계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비교 안내 시스템의 승환계약 방지 효과는 공감하지만, 고객의 계약정보가 오 히려 상품 리모델링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는 우려에서다.

업계는 손보업계가 도입한 만큼 생보업 계도 상황을 지켜본 뒤 참여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입자 사망 땐 배우자에 승계 유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임대 퇴직연금 의무화… 세율도 하향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 로 낮아진다.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에 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합리화된다. 기 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고, 퇴직 급여 일시금이 아닌 장기적으로 나눠받 을 수 있도록 연금소득세율도 하향 조정 한다.

13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개 인연금 기능 강화 등 투트랙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 이상 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가입연 령이 낮아지면 월 수령액은 줄어든다. 60세 가입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 로 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매달 119만 원 을 받지만, 55세에 가입하면 86만8000 원을 수령한다.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시가 9억 원에 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도 추진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 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 택요건도 낮아진다. 일부 공간에 전세를 준 단독 ·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 텔까지 넓어진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1억5000만 원 이 하를 가진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 액도 많아진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 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 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고령층이 갖고 있는 유휴주택을 활용 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서울시, SH공사와 협 업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할 계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우리 니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로 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미 달하고 있다"며 "안전한 노후자산 형성 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퇴직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한 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퇴직 급 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 록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연금 수령 기 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 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1%대 쥐꼬리 수익' 오명을 안고 있 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마련한 다. 디폴트 옵션(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 게 운용하는 제도)의 경우 퇴직연금 사 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운용하도록 제도 도입 시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한다. 개 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ISA)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금공 방문 안심 전환 대출 심사 직원 격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 의 직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 주택금 융공사와 캠코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심 사 업무가 폭증한 주택금융공사 직원을 위 로하고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최근 안심 대출과 정책모기 지 관심 증가로 직원 부담이 늘었다"며 "안 심 대출 대환을 기다리는 신청자가 대환 혜 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은 위원장 에게 "현재까지 5만 명의 대환심사가 완료 됐다"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한·KB국민·KEB 하나 등 주요 은행에 심사 관련 협조를 요 청할 계획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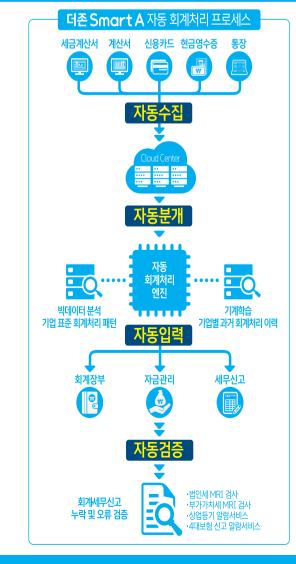
www.douzone.com

인공지능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서비스관리 외주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구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안전 최우선"…방산공장 자동화

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켓을 비롯한 유도

무기 개발 업무를 하

는 ㈜한화 대전 사업

장에서 2월 폭발사고

가 일어나 3명이 사망

했고, 지난해에도 5명

의 사상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강화가

이에 따라 ㈜한화는 사고 발생 이후 대

8월 재가동을 시작한 대전 사업장은 이

형 공정(로켓 추진체의 금속 재질 코어를

분리하는 작업)에 원격 작업이 가능한 설

비를 도입했다. 작업자가 직접 공실에 들

전 사업장을 원격화・무인화시켰다.

중점 과제가 된 것이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원격작업 설비 도입 "인명사고 없앤다"…보은·여수 사업장 적용 추진

㈜한화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全) 방위산업 사업장에 무인화·자동화를 추진 한다.

인명 피해의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 자동 화 설비를 도입해 사고 재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대전을 비롯한 보은·여수 등 전국 방산 사업장의 일부 공정에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 사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입찰 공고가 난 것으로 전 해졌다. 다만 방산 사업의 특성상 세부적 인 공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공정 자동화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

어가지 않아도 분리된 컨트롤룸에서 원격 화 설비를 통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추진체 운반을 위한 무인운반차도 설 치해 이형 공정 준비 단계부터 작업자가 사고에 노출될 기능성을 낮췄다.

㈜한화는 사고가 발생한 대전 사업장에 그치지 않고 전 방산 사업장에 무인화·자동화 공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회사관계자는 "대전 사고 이후 안전 강화를 위해 대전 사업장은 물론 보은과 여수 공장 등에 다각적으로 안전성 향상을 위한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옥경석 사장이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이후 (주한화의 전국 방산공장을 주기 적으로 방문해 안전을 강조하고 개선작업 을 독려한 것도 이번 공정 무인화·자동화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성 강화는 그룹 차

원의 '안전 제일주의'와도 무관치 않다.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은 10월 창립기념사를 통해 "'안전 제일주의' 문화를 뼛속 깊이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전경영은 업종 불문, 한화의 전 사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할 철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어 "각 사업장별로 정밀진단을 철저히 하고, 모든업무수행시 기본과 원칙을 엄수해 완벽을추구하는 안전경영을 뿌리내려야 한다"며 "안전을 지키는 일엔 결코 지름길이 있을수 없다. 안전에서만큼은 단 1%의 실수도용납될 수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화는 유도무기 및 정밀탄약 등 무기체계 개발 등 방산 부문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추진제, 추진기관, 항법장치, 레이저 등 무기체계 핵심기술 분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모비스가 초단거리 레이더 센서를 적용한 후방 긴급제동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시진제공 모비스

모비스, 후방 자동 제동 개발 레이더가 장애물 감지해 멈춰

현대모비스가 초단거리 레이더 센서 (USRR)를 활용한 후방긴급자동제동(R-AEB)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기존의 초음파 센서를 적용했을 때보다 응답속도가 빠르고 감지 거리도 길어 후진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13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후방긴급자동 제동은 후진 경로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 등 을 센서로 인식,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경보 를 울려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 면 차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기술이다.

이 장치에는 지금까지 주로 초음파 센서를 활용했고, 초음파와 카메라를 조합해 성능을 높이는 방식도 적용됐다. 후방 주차 시 초음파 센서의 감지 거리는 3m 정도였다. 반면,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개발한 초단거리 레이더는 5m까지 감지할 수 있다. 감지 거리가 멀면 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멀리 있는 타깃을 미리 감지한 뒤 충돌 유효 범위 내에 대상이들어오면 경보후 긴급제동 기능을 작동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초음파 방식은 온도나 습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 센서가 타깃을 인식하 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했다. 반면, 초단거 리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안정된 성능을 낼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기존 초음파 센서는 범퍼에 여러 개의 구멍이 필요했지만, 초 단거리 레이더는 범퍼 안쪽에 장착할 수 있어서 범퍼 디자인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다는 장점도 있다.

현대모비스는 근접 보행자와 사물, 좁은 주차 공간, 도로 턱 감지 등 12가지 상황에 대한 실차 성능 검증을 마쳤고, 해외에서 도 유럽 신차안전도평가(Euro-NCAP) 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정한 후방긴급제동 평가를 충족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최대 난관 EU 본심사 시작

내달 17일 1단계 결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합 병 여부를 좌지우지할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본심사가 시작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3일 대우 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 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U 기업결합 심사는 사전협의를 거쳐 본심사로 들어가게 된다.본심사는1단계(기본심사)와 2단계(심층심사)로 나눠서 진행된다.1단계결과는12월17일나을 것으로예상되며,2단계심사마무리는올해를 넘길 것으로보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EU는 기업결합의 핵심 국가로 분류되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U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나라 중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곳이다. EU회원국 선사들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해 반독점 규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 양 합병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이 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5월 13일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부회에서 "두 회사의 합병 이 정부의 도움 없이 진행되고 있 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지원 으로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4월 지문사 와 계약을 맺고 EU의 기업결합심 사를 위한 사전 실무 접촉을 시도 해왔다. 이어 7월 국내 공정거래 위원회를 시작으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총 6개국에서 기업결 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 을 받았지만 6개국 중 한 곳이라 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차 2019 월드 랠리 챔피언십 종합 우승 [1(모뮬러원)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대회인 '2019 월드 랠리 챔피언십 (WRC)'에서 현대자동차가 정상에 섰다. 현대차는 2019 WRC에서 참가 6년 만에 제조사 부문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팀이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RC는 서킷을 달리는 일반 자동차 경기와는 달리 포장과 비포장도로를 가리지 않고 일반 도로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월드랠리팀이 우승을 확정짓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떨어지던 D램값 안정화…내년 업황 회복할까

4분기 가격 5% 감소 그칠 듯 내년 세계 교역 둔화 변수 "매출 기대 이하" 전망 잇따라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하반기 들어 크게 축소됐다. 내년 상반기 반도체 업황이 업 턴(Up turn·상승국면)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온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교역 둔화 움직임에 따라 상승국면 전환이 지연되거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관 측도 제기된다.

13일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올 4분기 D램 평균 판매단가 (ASP)는 전 분기 대비 5%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큰 폭으로 떨어지던 D램 가격 하락세는 완만해졌다. D램 가격은 올 1분 기와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20~25% 감소 했고, 3분기 들어서는 15~20%로 감소폭 이 둔화됐다.

디램익스체인지는 지난달 총 거래량이 전 분기 대비 크게 증가하며 구매자의 지 불 의사가 늘었고, 공급 업체의 재고 수준이 낮아지면서 D램 가격 안정화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D램 가격 하락은 내년 1분기 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겠지만, 그 수준이한 자릿수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1분기 마지막 바닥 국면을 거쳐 2분기부터는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D램 재고는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내년 상반기엔 D램 재고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수는 세계교역 둔화다. 내년 세계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미·중간 무역분쟁도 해소되지 못하면서 교역 부진 현상이 지속될 경우 반도체 경기는 낙관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당장 수익 창출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결국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5G 수요 확대에 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에서의 메모리 수요 확대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전망기관들이 내년 반도체 산업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공급능력 축소로 수급 불균형이 조정되며 내년 D램 가격 하락세는 다소 진 정되겠지만 IT 관련 투자 둔화가 이어지면 서 수출이 감소 추세를 지속할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글로벌 공급과잉 및 중국 기업의 추격 등으로 지난해반도체 수출 성장세에는 못 미칠 것으로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해외에서도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을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독일의 보험사이자 세계적인 기관투자자인 알리안 츠그룹의 '2020년 반도체 부진과 전자 산업의 충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산업의 연간 매출은 내년에도 3% 감소할것으로 전망됐다.

알리안츠그룹은 "5세대(5G) 이동통신 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하기에 충 분하지 못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은 일본 과의 충돌로 더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화케미칼 3분기 영업익 개선 작년보다 63% 늘어 1524억원

한화케미칼은 3분기 영업이익이 1524 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2.6% 늘어난 수준이 다. 매출액은 2조4412억 원으로 5.6% 증 가했다.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원가 안정화와 태양광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의 하강국면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작년 3분기의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기초소재 부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에 따른 수요 부진 속에서도 원료가격 하락으로 주요 제품인 폴리에틸렌(PE), 폴리염화비닐(PVC)의 스프레드가 확대됐다. 태양광 부문은 656억 원의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흑자로 누적 영업이익은 1472억 원이다. 가공소재 부문은 신차 및 신규 휴대폰출시 효과로 전 분기 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 김벼리기자 kimstar1215@

GM·토요타 '후진' 할 때…현대기이차 뜨는 까닭은

글로벌 車시장 저성장 시대 진입 美 판매 브랜드 줄줄이 마이너스 현대기아차, 신차 효과·환율 덕 미국·유럽·인도 점유율 확대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이 경기위축과 무역전쟁에 따른 저성장에 발목 잡힌 가운 데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점유율이 확대 됐다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신차 효과와 환율 등의 호재를 잘 활용했 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현대·기아차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 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지만 현대·기 아차 판매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어났다. 먼저 미국의 지동차 시장은 10월 누적 기 준 작년보다 약 1.2% 감소하며 위축된 상 태다

10월 누적 판매를 기준으로 일본 △토요 타(-2.3%) △닛산(-7.1%) △마쓰다(-10.1%) 판매가 감소했다. 미국 △피아트



-크라이슬러(-1.2%) △포드(-3.1%) △ GM(-2.1%)도 모두 마이너스 성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여파가 부메랑이 돼 다시 미국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한 편, 픽업트럭 시장에 집중했던 빅3의 판매모델 노후화, 배기가스 및 안전기준 강화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현지 자동차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10월까지 전년 대비 4.6%와 3.3% 늘어난 58만 대와 51만 4000대를 각각 판매했다. 현대차는 신차효과를 봤고, 기아차는 우호적 환율을 앞

세워 판매 인센티브를 확대한 결과다.

특히 현지 SUV 시장 인기에 힘입어 투입 한 현대차 팰리세이드와 기아차 텔루라이드 가 약진하면서 점유율 확대에 힘을 보탰다.

특히 7월 본격 판매에 나선 현대차 팰리 세이드는 약 4개월 동안 총 1만7814대가 팔리며 효자 모델로 등극했다.

일본 혼다(0.6%)와 스바루(3.9%),독일 폭스바겐(3.7%)도 소폭 개선됐으나,현대·기아차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약진했다. 유럽 자동차제조협회 통계에 따르면 9 월 기준 유럽 시장에서 1년 만에 점유율 8%대를 회복하며 판매 4위에 이름을 올렸 다. 이 기간 현대차는 5만601대, 기아차가 4만9410대를 판매해 총 10만11대를 기록 해다

현대·기아차의 유럽 점유율(양사 합산)은 3월 6.1%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개선세에 접어들었다. 9월 점유율은 8월 (6.6%) 대비 1.4%포인트나 상승했다. 본격적 친환경차 판매 확대와 우호적 환율이 현지 점유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4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도 전체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현대·기아차는 선방하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올해 8월까지 10개월 연속 판매 감소세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8월 기준 전년 대비 자 동차 시장이 무려 23.5%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생산을 본격화한 기아 차의 약진이 특히 두드러진다.

소형 SUV 셀토스를 앞세워 10월 판매 순위에서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한 기아차 는 시장 점유율도 4.5%에 달해 일본 토요 타와 프랑스 르노, 미국 포드 등 글로벌 브 랜드를 제쳤다.

중동을 포함한 신흥시장 확대에도 주력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9월 누적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나 늘어난 8만7661대에 달했다. 역시 신차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년까지 대대적 신차 출시가 이어지는 만큼, 해외 판매에 신 차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정세와 무역분쟁 등 외부 적 불확실성을 제품 경쟁력으로 상쇄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平町/平田 ● O SUNT COMPANY 発程 IK

'카드·의료' 빅데이터 활용 길 열린다

국회 '데이터 3법' 통과 합의 개인 동의 없이 사업화 가능 바이오산업 등 불확실성 해소

산업계가 국회의 '데이터 3법 통과 합의' 소식에 본격적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AI 시대의 전제조건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빗장이 풀리며 기업들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신산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 로 보고 있다.

여야는 12일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의견을 모았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 제 완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발의됐으 나 개인정보 활용의 오남용 문제를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 지 못했다.

만약 상임위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빅데이터 3법은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은 현행법상 '그림 의 떡'에 불과했다.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다 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 면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가 명 정보라는 개념이 없어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 이터 규제체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 라의 IT 강점도 살리지 못한 채 기업들은 점점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데이 터 규제 완화 3법의 조속한 입법적 마무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산업 전반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기업들의 활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고객의 카드 사용 현황이나 의료 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 활용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호한국경제연구원산업혁신팀장은 "(개인정보와) 관련 규제들이 지금까지 한 국 바이오 산업 등을 가로막고 있었다"며 "특히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이번에 법 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에는 불확실성이 건 히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과 의료는 물론 산업 전반의 기업 활동에 제약이 다소 줄어들며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환영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삼성, 왓챠와 초고화질 'HDR10+' 콘텐츠 확대

삼성전자는 국내 인기 VOD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왓챠(WATCHA)'와 함께 차세대 영상 표준 기술인 'HDR10+'가 적 용된 콘텐츠를 확산한다고 13일 밝혔다.

HDR10+는 각 장면마다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해 영상의 입체감을 높여 주고 정확한 색 표현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완벽한 화질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DR 기술 발전과 생 태계 확대를 위해 2017년 파나소닉, 20세 기폭스와 함께 HDR10+ 연합을 결성했으 며, 지난달 말 기준 90개가 넘는 회원사를 확보했다. 초기에는 회원사가 TV 제조사 위주였으나 △샤오미, 오포 등 모바일 회사 △아마존, 라쿠텐 TV 등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워너 브라더스, 20세기폭스 등의 영 화사같이 하드웨어는 물론 콘텐츠까지 다 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시리즈를 필두로 모바일 부문에서도 HDR10+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다.

현재 HDR10+ 콘텐츠는 1500여 편에 이른다. 권태성기자 tskwon@



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2019. 11. 25(월) 15:10~16:00 BEXCO 제1전시장

프로그램

15:10~15:2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소개

Introducing Small Busines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SIMS)

심우일 수석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 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배경
- ② 보유 데이터 현황
- ③ 데이터 수집 과정
- ④ 활용 사례

프로그램 2 15:20~16:00

스라트업을 가속하는 사람들 '국내 액셀러레이터'와의 대화

Talk concert with "accelerators" to accelerate startups

심우일 수석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엑셀러레이터들의 경험 공유,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과정 및 성공 노하우 공유

박완성 대표(㈜벤처포트), 김유진 대표(스파크랩), 김동욱 대표(시리즈 액셀러레이터)















"지역자원세 수백억 더 내라니"… 시멘트 업계 '발칵'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법안이 연내 처 리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멘트 업계 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만약 연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의 이중 과세로 인한 시멘트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 으로 전망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지역 자원세 신설 법안은 2016년 9월 29일 강 원도 동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멘트업계 가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자원세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년을 계류해온 이 법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까닭은 총선을 앞둔 연 말에 졸속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멘트 업계가 이미 시멘트 생산 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지역자원 시설세가 신설될 경우 이중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생 산 과정인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1992년부터 세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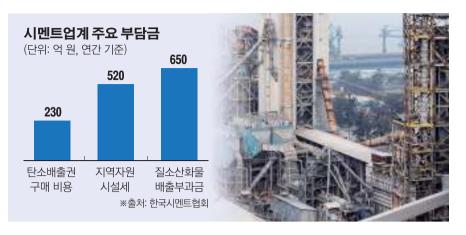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법안 총선 앞두고 연내 처리 가능성

이미 석회석에 연간 30억 세금 '시멘트세' 통과 땐 520억 稅폭탄 업계 "이중과세, 수용 못해" 반발

연간 30억 원기량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시멘트 지역자 원시설세 역시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존하는 지역자원세와 목적상 큰 차이가 없어 이중 과세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사회의 시 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의지는 강력하 다. 지난달 31일 시멘트의 주 산지인 충북 ·강원·전남·전북 지역의 지방분권 단체들



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자원시설세 신 설이) 지역 차원의 합당한 요구임에도 불 구하고 3년째 표류 중"이라며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9월엔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 지사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 는 공공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멘트 회사 2곳이 위치한 단양군에서 는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 양군의회의 김광표 군의원은 11일 열린 군 의회 본회의에서 "단양 시멘트 회사의 질 소산화물 배출량이 지난해 1만7000t"이라 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양에서만 연간 160억 원 걷히는데 집행 주체를 떠나 대략 재원의 70% 이상이 단양에 쓰일 것" 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로 안 그래 도 어려운 상황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업황 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수요는 2017년 이후 감소 추 세다. 업계에서는 올해 총 시멘트 생산량 이 지난해에 대비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로 시멘트 업계의 올해 당 기순이익은 10년간 평균치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역자원 시설세 신설 시 지난해 기준 시멘트 총 생 산량인 5209만t을 기준으로 하면 세금 약 520억 원이 업계에 부과되는 셈이고,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만으로 시멘트 업계 전체가 적자 구조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 는 시멘트 산업의 어려운 업황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로부터도 시멘 트 산업이 지역민의 건강에 무해하다는 판 결을 받은 바 있다"며 "석회석에 이어 시멘 트 생산까지 중복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 중 과세의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수용 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웅 기자 cogito@

네이버·카카오 만난 최기영 "규제혁신 적극 추진"

〈과기부 장관〉

인터넷기업 현장소통 간담회

"국내외 동등 규제 등 노력 기업들도 많이 협조해달라" 업계 "개발자 병역특례 지원을"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예측이 어렵고 변 화가 심한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와 관련, 기존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가 같이 발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개발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병역 특례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여의 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 들과 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 회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을 비롯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 카오 공동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 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우 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네거 티브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민간 업 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의 동등규 제 등과 같은 규제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 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



김기웅(왼쪽부터) 위쿡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만 기업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많이 도 와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 업계 대표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문제, 각종 규제, 데이터와 개인정 보보호, 사회적 책임, 공유경제 등과 관련 한 내용을 건의했다. 인터넷 업계 대표들 은 인터넷 기업들이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 항과 정부의 지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 견을 나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가 개최한 '데뷰 2019' 행사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개 발자들을 격려해줬다"며 "개발자들이 느끼 는 어려움은 병역특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 다"고 건의했다.

특히 인터넷 업계 대표들은 새로운 서비

스가 생겨나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새 로운 규제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 면서 정부의 규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 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간담회에서 직접 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불법운행 으로 기소돼 논란을 겪고 있는 '타다'를 두 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기영 장관은 "공유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 서 비스와 새로운 서비스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찾아보겠다"며 "문제를 같이 인식하면서 공유경제와 기존 사업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 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iatio@

알뜰폰도 데이터 걱정없이 쓰세요

LG U⁺, 업계 첫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

월 4만원에 150GB 제공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대용량 LTE 데이터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인 다. 하루 5GB씩 매달 150GB의 대용 량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

1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 측 LTE망을 임대하고 있는 20여 개 알뜰폰 중 요금제 출시를 원하는 사업 자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용량 LTE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 다. 우선 6개 알뜰폰 사업자가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알뜰폰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LTE 핵심 요금제 중 하나인 '추가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69'를 모태 상품으로 한다. 이 요금제 는 월정액 6만9000원에 일 5GB씩 월 150GB(30일 기준)의 LTE 데이터 를 제공하고 소진 시에도 5Mbps 속 도로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 다.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 역시 무제

통상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로 부터 회선 사용료를 40~50% 할인된

가격에 도매 제공받고, 소비자에게 20~3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용량 걱정없는데이터 69'와 동일한 혜택을 4만 원대 요금으로 제공 가능하다.

모태 상품인 '추가용량 걱정없는 데 이터 69'는 기본 제공 데이터 양과 속 도 제한 수준을 고려하면 데이터를 마 음껏 사용할 수 있어 고객 가입 비중 이 높은 LG유플러스 인기 요금제 중 하나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정액형 선불 요금제도 이달 중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 요금 제는 '정액선불 11GB+', '정액선불 11GB(국제)+' 2종으로, 하루 2GB 씩 60GB(30일 기준)와 추가 제공 데 이터 11GB를 매월 제공한다. 데이터 소진 시에도 3Mbps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전략 요금 상품의 알뜰폰 출시 지원이 MVNO 사업자들의 수익 개선과 가입자 확보 및 유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소진공 '드림스퀘어' 스튜디오 무료 개방

로 증가했다.

8만61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과세 회피' 목적 부동산 법인 설립 늘어

3분기까지 신설법인 역대 최대

올 3분기까지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고 치를 기록했다. 과세를 피할 목적으로 부 동산 법인을 많이 만든 것이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설 법인 동향을 분 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설 법 인 수가 8만61개로 전년 동기(7만6851 개) 대비 4.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만6922개 (21.1%), 제조업 1만4505개(18.1%), 부 동산업 1만245개(12.8%), 건설업 8126 개(10.1%)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업은 지난해 7332개보다 2913개 늘어 증가 법인 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과세 강화로 조세 부 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 려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 명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 을 만드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분기별로는 3분기 신설 법인 수가 2만 616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 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5553개 (21.2%), 제조업 4654개(17.8%), 부동 산업 3473개(13.3%), 건설업 2593개 (9.9%) 순이었다. 제조업은 음식료품 (22.2%), 인쇄·기록(52.0%) 등이 주로 늘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 (4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4.5%), 정보통신업(10.8%)이 큰 폭으

3분기에는 연령별로 40대 8853개 (33.8%), 50대 6843개(26.2%), 30대 5559개(21.3%) 순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 하는 등 전 연령대에서 신설 법인 수가 늘 었다. 임기훈기자 shagger1207@

1인 미디어 제작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서 사회적가치 실현 및 공유문화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 마포구 소 재 '드림스퀘어'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지

이번 무상 지원은 온라인, 1인 미디어 시장 확대 등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 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추진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8월 7일 오픈한 '드림스퀘어'는 새로운 형태의 창 업전문 복합교육장으로 비점포형 창업 체 험공간, 강의실, 영상 · 사진 · 음향 셀프 스튜디오, 회의실,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

돼 있다.

특히드림스퀘어는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공단의 기존 창업교육부터 △전자상거 래 창업 체험 △홈쇼핑 및 1인 방송 아카데 미 교육을 통한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 셀프 스튜디오를 활용한 1인 방송 콘텐츠 △창업아이템 홍보자료 제작 등을 통해 신 사업 아이템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자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은 "드림스퀘어 스튜디오를 활용해 소상 공인 누구나 본인의 창업 아이템을 홍보하 고 더 나아가 온라인 시장 진출의 교두보 로 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시작과 성 장을 드림스퀘어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美서도

한 잔~ 하이트진로 '아메리칸 드림'

연초 소주 판매 법안 통과로 소비자 병 단위 구입 가능 美법인 매출 꾸준히 증가세 주류 체인 베브모어에 입점 판매망·제품군 확대 나서

하이트진로의 미국 시장 공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소주 판매 법안 통과로 향후 영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 되는 데다, 현지 법인 실적도 매년 개선되 며 신시장으로서 가치도 높아지고 있기 때 문이다.

하이트진로는 한국 소주 브랜드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주류 전문 체인인 베브모어(BevMo!)에 '참이슬후레쉬' 등 4종이 본격 입점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베브모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베브모어 본부를 통해 △참이슬 후레쉬 △진로24 △딸기에이슬 △청포도 에이슬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하이트진로 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등에 위 치한 150개 매장에 하이트진로 제품 4종 을 판매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하이트진로 제품을 판매하던 주류전문매장인 리스 디스카운 트 리쿼(Lee's Discount Liquor), 스펙 스(Spec's)에 이어 베브모어 입점을 통해

하이트진로 미국 법인 매출 현황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가정용을 비롯한 미국 내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하이트진로의 미국 공략 가속화 배경에 는 최근 미국 내 소주 판매 관련 법안 통과 가 자리하고 있다.

법안 통과 전 워싱턴 내 식당과 술집에 서는 소주를 낱잔으로 판매하게 돼 있었는 데 올해 초 미국 워싱턴주 하원에서 소주 판매 법안이 통과되면서 소주를 병으로 판 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법안 제 정은 1998년 캘리포니아주와 2002년 뉴 욕주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 소주의 인지 도 상승에 따른 변화라는 게 회사 측 설명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주마다 법이 달라 보틀(병)로 판매가 안 되는 지역이 있는 데, 이 경우 '잔' 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술이 소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인의 실적 개선도 드라이브 가속

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미 국 시장에서 팔린 하이트진로 주류(맥주 500ml, 소주 360ml 기준)는 1800여만 병 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 늘어난 수치다. 미국 내 전체 주류 판매량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15% 증가했다.

미국 법인 매출액은 2014년 173억 원, 2015년 208억 원, 2016년 250억 원, 지난 해 292억 원 등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판매망뿐 아니 라 제품군도 강화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달 '일품진로1924'를 미국 전역에 출시해 미국 내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 확대에도 나섰다.

최근 소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나이, 성별, 지역 등 타깃이 세분화되고 있는 만 큼 하이트진로는 주류 트렌드를 반영해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시장 성장을 주도 한다는 전략이다.

일품진로1924는 2014년 창립 90년 기 념주로 출시된 '진로1924'에 대한 소비자 들의 재출시 요구가 거세 약 4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지난해 국내에 처음 출시된

한편, 하이트진로는 앞서 2017년 말 진 로아메리카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법인사 옥을 통합했다. 진로아메리카는 1986년 개설된 하이트진로의 첫 해외법인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마트가 개점 26주년을 맞아 '제주은갈치(중/마리/해동)'를 10년 전 가격(2280원)보다 저렴한 1980 원에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 26돌 기념 "10년 전보다 싸게"

제주은갈치 등 17개 품목 공개

이마트가 한우, 삼겹살에 이어 이번엔 제주 은갈치를 싸게 내놨다.

이마트가 개점 26주년을 기념해 갈치. 지숙 랍스터·깐마늘 등 총 170여 개 상품 을 14일부터 2주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이마트는 '10년 전 전단 가격보다 싼' 상품 17개 품목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 으로 이마트는 '제주은갈치(중/마리/해 동)'를 10년 전 가격(2280원)보다 13% 저렴하면서 기존 판매가 대비 20%가량 저 렴한 1980원(마리 당)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지숙 랍스터 (325g, 캐나다산)를 10년 전가격(1만4500원)의 절반 가격, 직전 판매가 대비 30%가량 저 렴한 6980원(325g 내외)에 판매한다. 올 해 개점 행사를 위해 이마트는 캐나다 현 지 업체와 사전 계약을 맺고 자숙랍스터 14만 마리(14억 원) 물량을 3월부터 직소 싱해 비축했다.

깐마늘(1kg/국내산/대)도 사전에 5만 봉(50톤)을 농가와 사전 계약해 4380원에 준비했다. 제철이 막 시작된 조생햇귤을

가득 담은 '당도선별 감귤(3kg, 국내산)' 은 행사카드로 2박스 구매 시 1만4000원 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트렌드 상품을 비롯 해 장바구니 필수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베트남산 '코끼리망고 (830g 내외)/아기코끼리망고(620~710g 내외)'를 5500박스 한정으로 최대 22% 저렴한 6980원/5980원에 판매한다.

올해 산지 어황이 좋아 살이 통통하게 차 오른 '영광참굴비(특/10미)'는 기존 대비 30%가량 할인한 1만6800원에 판매한다. 올가을 영광에서 잡아 올린 신선한 햇조기 를 국내산 천일염으로 염지했다.

영하권 추위가 찾아옴에 따라 방한용 생 활·가전용품 할인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 다. 대표 상품으로, '헝가리 구스다운 이불 (S/Q)'을 각각 5만 원 할인한 12만9000 원/18만9000원에 판매한다. 계절 가전 상 품으로는 '신일 전기요(더블)'를 8만9800 원에 판매하며 전기요 싱글 사이즈 상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열효율을 높인 '신일 에 코히터'는 행사카드 구매 시 2만 원 할인한 11만9000원에 판매한다.

남주현 기자 jooh@

겨울철 긴 밤 '꿀잠'이 필요하다면…

파자마·담요·베개·안대 등 최근 한 달간 수면용품 판매↑ 호텔업계도 패키지 상품 가세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유통가가 '꿀잠' 마케팅에 한창이다. 숙 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면(SIeep)과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란 신 조어까지 등장했다. 한국수면산업협회 는 2012년 5000억 원이던 수면 산업이 올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13일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 (10월 13일~11월 12일)간 백색 소음 기, 메밀 베개, 거위 털 베개, 수면 안대 등 수면용품 판매가 각각 전년 대비 196%, 259%, 20%, 12%씩 증가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겨울철 수면을 돕는 잠 옷, 담요 등 다양한 수면용품을 내놓으 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랜드월드의 여성 캐주얼 브랜드 바 이로엠(BYROEM)은 인기 캐릭터 '옴 팡이'와 손잡고 '옴팡진 꿀잠나잇 에디 션'을 출시한다. 바이로엠과 옴팡이가 만난 '옴팡진 꿀잠나잇 에디션'은 추운 겨울 꿀잠을 선물해줄 파자마를 비롯해 수면 상품 8종으로 구성됐다.

대표 아이템으로는 '옴팡지게 포근해 파자마세트(6만9900원)', '옴팡지게귀 여워 원피스파자마(4만9900원)', '옴팡 지게 따뜻해 수면 담요(2만9900원)' 등 이 있다. 이번 에디션은 18일 정식 출시 에 앞서 13일부터 17일까지 사전예약 이 벤트를 진행한다. 사전 예약 시 전 구매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과 신상 옴팡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증정한다.



바이로엠×옴팡 '옴팡진 꿀잠나잇 에디션'(왼쪽)과 신세계백화점 란제리 전문 편집숍 '엘라코 닉' 자체 브랜드인 '언컷' 겨울 파자마 신제품. 사진제공 이랜드월드·신세계

'엘라코닉'의 자체제작 브랜드 '언컷'은 겨울을 맞아 커플용 파자마를 처음 출시 했다. 언컷은 기존 여성용 제품만 출시 하다 이번에 남성 라인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출시한 파자마는 셔츠 형태에 레 트로 감성을 더한 체크 프린트가 특징이 다. 남성용 상의 가격은 7만9000원, 하 의 6만9000원, 세트로 구매 시 14만 8000원에 판매한다.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도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의류를 선보인다. 좋은 사람들은 롯데백화점 일산점에서 24일 까지 '꿀잠 프로젝트' 팝업스토어를 열 고 파자마, 라운지웨어, 이지웨어는 물 론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성 수면 의류를 폭넓게 판매한다.

그 외에도 잠자기 전 스트레칭과 요가 로 심신을 안정시킬 때 입을 수 있는 보 디기어 요가웨어, 경량 소재와 오버핏 라인으로 실내에서 편안하게 착용 가능 신세계백화점의 란제리 전문 편집숍 한 라운지웨어,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

께 커플로입을 수 있는 예스 '개자마 컬 렉션'도 함께 선보인다. 좋은사람들은 이번 '꿀잠 프로젝트' 입점을 기념해 주 요 상품들을 특별 할인가에 판매한다.

호텔업계도 꿀잠 마케팅에 가세했다.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에서는 '글래드 꿀 잠' 시즌 3 패키지를 내년 2월 29일까지 선보인다. '글래드 꿀잠' 패키지는 글래 드 호텔을 경험한 고객들이 '편안한 숙 면을 할 수 있어서 만족했다'는 고객 리 뷰에서 착안해 편안하고 건강한 숙면을 돕기 위해 글래드 호텔이 선보여 온 시 그니처 패키지다. 글래드 호텔의 숙면 시스템은 저알레르기성 베개, 메모리폼 베개 등 다양한 베개를 갖추고 있어 이 용객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 미국 PCF사의 최고급 침구와 에이스 프리미엄 매트리스,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의 글래드 배스로브는 편안한 숙면 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박미선 기자 only@

'김장김치' 편의점서 준비하세요

세븐일레븐 '심영순 김치' 예판… 비건김치도 선보여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본격적인 김장철 을 맞아 12월 말까지 김장김치 예약 판매 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이 올해 준비한 상품은 소포 장 김치세트부터 대용량 포장김치, 김장재 료등총 7종으로 구성됐다.

먼저 세븐일레븐은 심영순 요리연구가 레시피로 만든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500g/4입) 김장 김치를 판매한다. '심영 순 김치3종세트(2만9600원)'는 심영순 요리연구가의 비법 향신즙과 심영순 쇠고 기국간장을 넣어 만든 상품으로 맛김치 (2캔), 깍두기(1캔), 총각김치(1캔)로구 성돼 있다.

또한 비건 상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채식주의자를 위한 '심영순 비건김치세트 (3만1600원)'도함께 선보였다. 비건김치 세트는 젓갈이나 해산물 육수를 넣지 않고 채소 육수 등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상품 으로 맛김치, 섞박지 2종으로 구성됐다.

대용량으로 구성된 '포기김치(10kg/4 만8000원)', '동치미(5kg/1만7500원)' 별 미김치 3종과 간편 김장재료인 '절임배추 (10kg/2만3000원)' 등도 판매한다.

세븐일레븐 김장김치는 12월 말까지 전



국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예약 주문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들은 택배를 통해 지정한 주소지까지 무료로 배송된다.

한편, 올해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배춧값이 크게 급등하면서 직접 김장을 하기보다 포장 김치를 구입해 먹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편의점에서 김장 김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 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해 김장김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2% 신장했다.

김고은 세븐일레븐 신선식품팀 MD(담 당기획자)는 "김장 시즌에 맞춰 명인의 맛 을 담은 소용량 김치세트를 차별화 상품으 로 새롭게 도입했는데 연말 지인 선물용으 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K바이오시밀러, 세계 최대 '美허셉틴 시장' 뚫는다

3.4兆 유방암 치료제 시장… 내년 상반기 5개 제품 출시 효능 내세운 셀트리온 '허쥬마' … 삼성바이오 '온트루잔트' 도 '약가 인하' 정책에 바이오시밀러 확대 기대… 마케팅이 관건

글로벌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허셉 틴' (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바이오시밀 러가 2020년 일제히 미국 시장에 출시된 다. 진입 문턱이 높은 미국에서 셀트리온 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얼마나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미국 시장에 진입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총 5개 제품이다. 국산 바이오시밀러 대표 주 자인 셀트리온의 '허쥬마'와 삼성바이오로 직스의 '온트루잔트'가 다국적제약사 마일 란/바이오콘의 '오기브리', 화이자의 '트 라지메라', 암젠/엘러간의 '칸진티'와 격 돌을 벌일 전망이다.

허셉틴은 제넨테크가 개발하고 로슈가 판매하는 유방암 치료제로 1998년 미국식 품의약국(FDA)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종양의 성장에 관여하는 HER2 유전인자 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항암제로, HER2 유전자가 과발현한 전이성 및 조기 유방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 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70억9200만 달러 (약 8조3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허셉틴 시장이다. 2018년 시장 규모는 29억7300만 달러(약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미 제품을 팔고 있는 유럽 시장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여성의 약 0.2% (2018년 기준 23만5000명)가 매년 유방 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셉 틴은 20년 동안 효과를 검증받으면서 유방 암의 글로벌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수요의 10%만 확보해도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허셉틴 지역별 매출 비중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현황			
(단위: %, 2018년 기준)	기업	제품	미국 FDA 승인 시기	
일본・	셀트리온	허쥬마	2018년 12월	
1	삼성바이오에피스	온트루잔트	2019년 1월	
	마일란/바이오콘	오기브리	2017년 12월	
유런	화이자	트라지메라	2019년 3월	
유럽 미국	암젠/엘러간	칸진티	2019년 6월	
기타 28	ii de	1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국산 바이오시밀러 가 쾌속 성장하는 유럽과 사정이 다르다. 유럽은 입찰 방식의 정부 조달 시장이다. 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 도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제약사와 보험약제관리사(PBM), 보험사의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될 바이오시밀러를 굳이 처방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유럽에서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은 셀트리온의 '램시마(미

국명 인플렉트라)'는 미국에서 출시한지 2년 반이 넘었지만 한 자릿수 점유율로 고 저하고 있다

셀트리온과삼성바이오에피스는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 하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1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 균(8.9%)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의회는 약가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한목소 리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 사보험사 들이 처방의약품 목록에 바이오시밀러를 확대하고 있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처방목록을 바이오시밀러로 전환하고 램시마와 칸진티 등을 선호의약 품으로 등재한 것이 그 예시다.

내년 1분기 허쥬마의 미국 출시를 앞둔 셀트리온은 업계에서 이례적인 3년 장기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등 효능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22개국 500여 명의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다년간 축적한 임상 데이터로 의료진에게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동기를 부여한다는 전략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3월 주주총회에서 "허쥬마의 판매를 직접 진두지휘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쳐 램시마보다 빠르게 (미국시장에) 침투하겠다"고 자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비슷한 시기 파트너사 MSD를 통해 온트루잔트를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암제는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 치료 제보다 점유율을 빨리 확대할 수 있다"면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가 동시에 시장에 나오는 만큼 마케팅 역량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혜은 기자 euna@

Part 16.5 Sub-hamping serrey sastes

JW중외제약 '유비팜' 출범 동남아 제약시장 본격 공략

JW중외제약이 파머징 시장 공략을 위해 인수한 유비팜이 공식 출범했다.

JW중외제약은 베트남 롱안성에서 '유비팜JSC'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경하 JW그룹 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를비롯해 양길춘 유비팜 법인장 등 현지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9월 유비팜 지분 100% 인수계약을 체결한 JW중외제약은 대표이사에 JW생명 과학 양길춘 상무를 선임하고 법인등록을 완료했다. 국내 기업이 베트남 제약사 지분 전체를 취득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W중외제약은 유비팜에서 생산한 의약품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국가 등 파머징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2005년 설립된 유비팜은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원료 •완제의약품 생산 전문기업으로 베트남에서 최대 수준인 연간 19억3700만 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먼저 분말 주사제와 정제, 캡슐제, 점안 제 등 유비팜에서 즉시 생산 가능한 50여 종의 의약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설비 보완과 품목 허기변경을 통해 생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JW의 차별화된 제제 연구역량을 비롯한 생산·품질관리 기술을 이전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방침이다.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인증도 추진하며, 향후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에도 나선다.

이경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비팜이 베트남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메이저 외국계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을 발판 삼아 아세안 시장을 비롯한 파머징 마켓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신약개발에 AI 접목… 글로벌 제약 판 뒤집을 기회"

바이오 줌인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사장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업의 코스닥 상장과 정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 이나 다름없죠. 이번 기회를 통해 후속 관련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바이오업계의 '4차 산업 관련 혁신기업' 상장 1호로 떠오른 신테카바이오의 김태순 경영총괄 사장은 '퍼스트무버(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로서 상장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제약업계에선 선례가 없던 인공지능을 접목한 신약개발 기업의 상 장이다 보니 기술 검증 및 비지니스 모델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인정을 받아내 기까지 타 기업들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고 털어놨다.

신테카바이오는 2009년 설립된 기술 벤처 회사다. 이 회사는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등과의 협업과 함께 유전 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신약 후보물 질 발굴,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일 수 있 는 바이오마커 개발 및 유전체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400억 원 의 벤처캐피털(VC) 투자를 유치해 기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사장은 "제약업계에서 선례가 없던 비지니스 모델이다 보니 상장준비 과정이 다른 기업들보다 어려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국내 170여 개 AI신약개발기업 중처음으로 성장성 특 례로 코스닥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연내 코스닥 입성을 위해 상장공모 등을 준비

업계에선 신테카바이오의 코스닥 상 장 승인이 연평균 40%까지 가파르게 성 장하고 있는 AI신약개발의 세계적 흐름 에 적절했다는 평가다.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대안인 AI를 이용한 신 약개발은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의 필 수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세계 제약산업에 이 같은 IT기술이 접목되면서 패권다툼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신약개발에 데이터 분석과 예측이 중요해지면서 구글, 마이 크로소프트 등 IT회사들이 제약바이오

를 전략 사업으로 표방하며 대규모 투자 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김 사장은 미국·유럽 등이 세계 제약 바이오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IT 기술은 기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한다.

그는 "신약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 길 수 있다. 용과 10년 이상 소요되는 시간 등을 해 이 같은 전 결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AI에 전 세계 오는 앞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을 다지는 데 기업 모두 발 빠른 대응만이 선진국보다 그는 "IT전된 뒤처진 K바이오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어회사로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판 삼아 코

올해 정부에서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58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국가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미국 FDA (식품의약국), EMA (유럽식품의약국)를 제치고 퍼스트무버가 될 수 없다면 K바이오가바이오시밀러처럼 후발주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차별화된전략을 국가가 기업들에 제시해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이자 다국적 제약기업인 MSD에서 신약개발 임상연구이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 사장은 자사의 AI신약개발의 비지니스 전략도 내놨다. 다수의 AI신약개발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신약개발 초기단계(디스커버리)보다임상시험의 성공확률을 높일수있는 방법(디벨롭먼트)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전자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개인유전체지도 (PMAP)를 이용해 임상시험에 최적화된 유전자 패턴을 지닌 환자군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치료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으로 무장한 신테카바이 오는 앞으로 업계 첫 상장기업으로 내실 을 다지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IT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소프트웨 어 회사로서 1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발판 삼아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선구자 역 할을 할 것"이라며 "상장공모 금액으로 고급인력 및 IT시설 장비를 확충해 기술 진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이스라엘 프로텍트社 360만 달러 펀딩 성공

부광약품·폰즈 공동으로 주도 신경치료 시험·임상개발 투자

이스라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프로텍트 테라퓨틱스가 360만 달러(약 42억원)의 자금 모집 계약을 완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자금 조달은 부광약품과 폰즈 데 솔리데라이트 FTQ가 공동으로 주도했다. 그 외 기존 투자자인 퓨처엑스, 올비메드, 존슨앤드존슨 이노베 이션, 다케다 벤처, 그리고 알엠 글로벌 파 트너 바이오파마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참 여하다

프로텍트테라퓨틱스는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를 위해 새로 운 PKR 카이네이즈 억제제 기반 치료제 를 개발하는 회사다. 조달한 자금은 후보물질 선정 및 신경 치료 효과에 대한 검증 생체 내 시험에 주 로 사용할 예정이다. 환자 선별 및 개인화 치료를 위해 관련 진단 검사의 임상 개발 도 시작한다.

요탐 니셈블랏 프로텍트 CEO는 "이번 자금 모집을 통해 새로운 후보물질 선택뿐 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신경염증 억제제 효 과 검증이 가능해졌으며, 다음 자금 모집 을 통해 임상 연구까지 개발을 지속하겠다"며 "정밀 의약품 개발방식과 환자 선별 진단 검사의 개발은 효과적인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원 부광약품 대표이사는 "유망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일원이 되어 기쁘다"면서 "부광약품은 강력한 연구·개발(R&D)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자금 모집 참여로 앞으로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고 신약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공격적 투자 권하는 증권가, 유망 종목은 제각각

4월 총선 전후 '정치테마株' 증시 견인·반도체 업황 회복세 전망 "무역협상 마무리·제조업 수출 증가 영향 시장 활력 되찾을 것"

증권시들이 내년 핑크빛 증시 전망과 함 께 공격적인 투자를 추천하고 있다. 공통 적으로 경기 회복을 전망하며 반도체 중심 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안했다.

금융투자업계의 내년 전망을 종합하면 미 · 중 무역협상 마무리와 함께 제조업 수 출 증가로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코스피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내년 주요

이슈로는 △1월 브렉시트 결정 △1월 미 · 중 무역협상 마무리 △4월 한국 총선 △ 11월 미국 대선 등이다. 상반기에는 총선 을 전후로 정치 테마주가 증시를 이끌고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기업이 견인 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코 스피 순이익 증가율 컨센서스는 30.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상밴드는 2000~2400포인트로 제시하는데 상반기 중 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



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업종이 이익 증가 를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SK텔레콤, 포스코 등을 영 업이익 증가 종목으로 꼽았다.

NH투자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하와 중국의 경기 확장이 국내 경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봤다. 연간 관심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디 스플레이, LG이노텍, 현대모비스, 스튜디 오드래곤, CJ제일제당, 앱클론, 한국전력, 셀트리온헬스케어, 서진시스템을 지목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바이오주를 추천했다. 김승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상장을 앞 두고 있는 SK바이오팜과 네오이뮨텍, 메드 팩토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예상된 악재 대부분이 해소되면서 임상 초기에 있 는 업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KTB투자증권은 스몰캡 중심의 암 호화폐, 소재 국산화(소부장), 2차전지장 비 테마 투자를 조언했다. 종목별로는 다 날, APS홀딩스, 씨아이에스, AJ렌터카, 휴비츠, 예스24 등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실물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고 시장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 달리 채권가격 상승(금 리 하락)이 제한될 경우 한국의 위험자산 투자 매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 윤기쁨 기자 modest12@

국공채 ETF 수익률 '뚝' … 안전자산 저무나 공사수익 80%, 내부거래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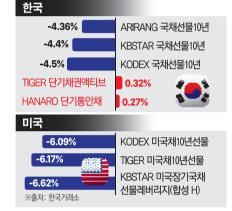
금리인하 기대감 줄고 무역협상 순조 투자자 '안전→위험자산' 관심 옮겨 29종목 3개월 평균 수익률 -1.94%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이 최근 증시 반등세에 주춤하면서 국공채권 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 도 급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 지만 전문가들은 채권시장 약세가 장기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외 국공 채 관련 ETF 29종목(레버리지 포함)의 3 개월 평균 수익률은 전일 기준 -1.94%다. 이 중 국내 국공채 ETF는 -1.62%로 평균 과 비슷했다. 반면 미국 국채를 추종하는 ETF 6개의 평균 수익률은 -5.40%로 하 락폭이 크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채 가격이 하락세를 탄 결과 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던 금리 하 락 기조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든 데다 미 · 중 무역 협상도 순조로운 기류를 보이며 채권 등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투 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채권 금리도 반등세를 탔다. 통상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국공채권 ETF 3개월 평균 수익률(12일 기준)



고려했을 때, 장기채 금리 상승폭이 커지 면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개월 전 1.229%에서 이날 오전 1.814%로 마감하며 0.585%포인트 올랐 다. 3년물 금리도 1.150%에서 1.540%로 0.39%포인트 상승했다. 10년 만기 미국 채 금리는 9월 말 1.66%에서 8일 1.94% 로 0.28%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 다. 특히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종목의 손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는 'KOSEF 국고채10년레버리지' ETF가 - 8.53%로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이 밖에 'KODEX 국채선물10년(-4.50%)', 'KBST AR 국채선물10년(-4.40%)', 'ARIRANG 국채선물10년(-4.36%)' 순 이다. 면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 중에 서는 'TIGER 단기채권액티브 (0.32%)', 'KINDEX 단기통안채 (0.30%)', 'HANARO 단기통안채 (0.27%)' 등 간신히 플러스 수익률을 달 성한 종목도 있었다.

미국 채권의 경우 'KBSTAR 미국장기 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가 -6.6 2%로 가장 낮은 수익을 냈다.

'TIGER 미국채10년선물(-6.17%)', 'KODEX 미국채10년선물(-6.09%)',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4.02%)' 등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국채 약세가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상훈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 · 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되면서 글로벌 채권시장도 시차를 두고 조 정을 겪고 있다"면서도 "내년엔 점진적 경 기 회복을 전망하지만 금리 인상기를 맞이 할 정도로 실물 경기 회복과 자산가격 버 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진 않는다"고 설 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중걘그룹 일감돋보기

동원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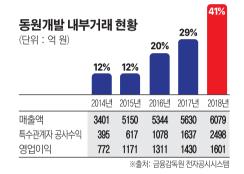
동원개발의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비율이 최근 10년래 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최근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공사수익의 80%가 내 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오너가는 벌어들 인 수익으로 배당도 받고 있다.

현재 최대주주는 오너 2세인 장호익 사 장으로 지분율은 16.25%다. 창업주인 장 복만 회장이 물러나면서 장남인 장 사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장 사장은 계열사인 동원주택을 통해 지분율 32.51%를 확보 하면서 지배력을 보완했다.

특히 동원주택은 장 사장이 동원개발 외 에 다른 계열사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사업목적에 '자회 사 · 계열회사 투자관리 및 투자 컨설팅'을 추가하기도 했다. 동원주택은 건설뱅크 (100%), 21세기개발(50%) 등 동원개발 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원개발은 2014년부터 가파른 성장세 를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은 2014년 3401 억 원에서 2018년 6079억 원으로 신장했 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72억 원에서 1601억 원으로 늘었다. 주목할 대목은 그 룹 내 종속 · 관계사(특수관계자)와의 거 래 즉, 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 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동원개발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2014년 부터 급속도로 커졌다. 신규 택지 분양에 계열사의 사업을 진행하는 중견 건설사 특



매출 2014년부터 급성장 오너 작년 배당금만 27억

유의 경영 방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 다. 내부 일감 비중은 매출액 대비 2014~ 2015년 12%대를 시작으로 증가하면서 2016년 20%, 2017년 29%로 꾸준히 상승 했다. 작년에는 41%로 정점을 찍으면서 최근 5년간 급상승했다.

지난해 동원개발이 계열사 및 특수관계 자로부터 거둔 공사비는 총 2498억 원이 다.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또 작 년 공사 수익은 3038억 원으로 내부거래는 이 중 82%를 차지한다.

한편 동원개발은 2018 결산연도를 기준 으로 보통주 1주당 185원의 현금배당을 했다. 2014년 650원을 지급한 다음 해엔 100원으로 줄었지만 매년 늘리는 추세다.

작년은 차등배당이 아닌 만큼 총수 일가 개인에게만 돌아간 배당금은 28억 원 규모 로이 중 27억 원은 장 사장의 몫이 됐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STX조선해양, 충당부채 정리에 유동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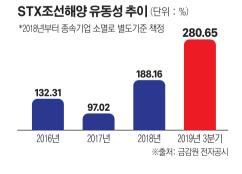
유동비율 280%, 전년比 100%P↑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플러스 전환 3분기 매출 2637억으로 23% 늘어 법정관리 졸업 2년 만에 정상궤도

STX조선해양이 올 들어 충당부채를 대 거 정리하면서 유동성도 한층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적 개선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의 3분기 기준 유동비율은 280.65%로, 전년 말(188.16%) 대비 10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97%에 머 물렀던 2017년과 비교하면 2년도 채 걸리 지 않아 정상궤도에 오른 셈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유동부채의 급감이 유 동성 개선에 한몫했다. 회사의 올해 유동 부채는 981억3700만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40%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손실 충당부채가 491억 원, 매입채무가 140억 원, 미지급금이 80억 원 감소했다.

이 밖에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충당부채



등 비유동부채에 계상돼 있는 충당부채들 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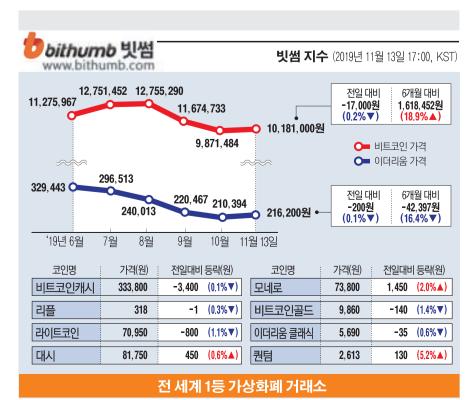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의 감소는 현금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금흐름상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러나 올 3분기 누적 현금흐름이 206억7600만 원을 기록, 되레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부채 환입이 있었음에도 500억 원 규모의 당기 순이익과 자산 축소 등에 따른 현금 유입 덕분이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 당기순손 실만 1000억 원에 가까워 현금흐름에 악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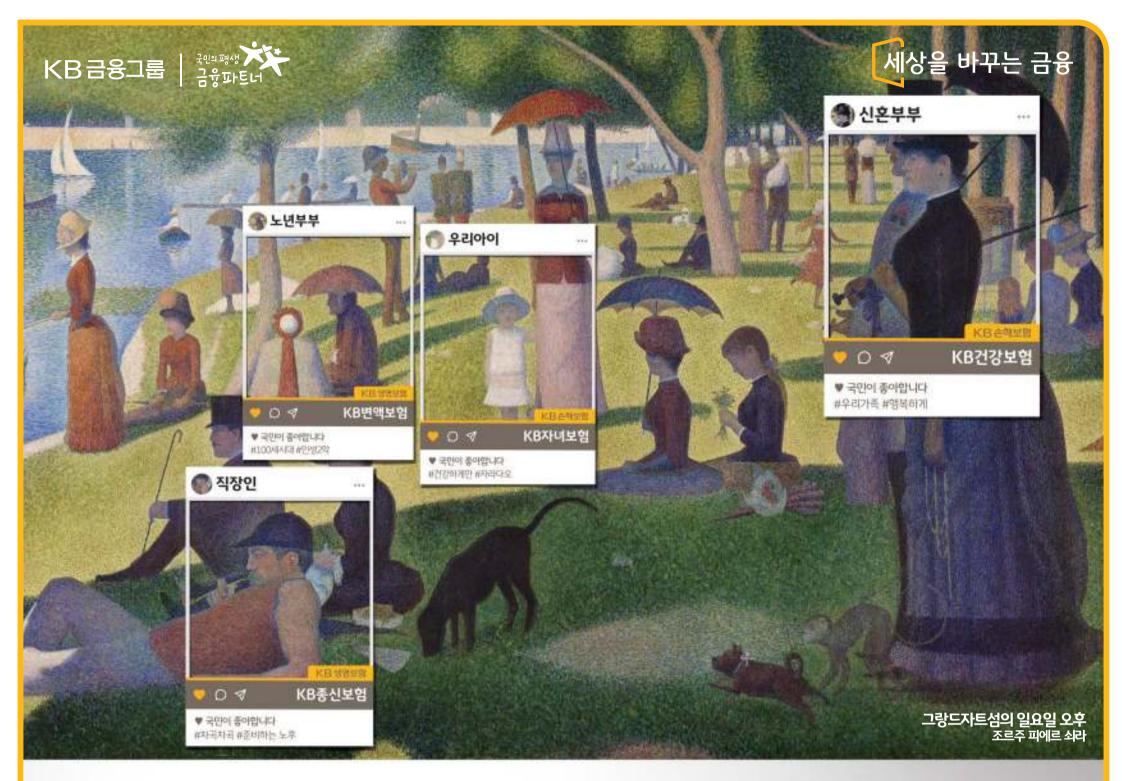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STX조선해양은 최근 일 부 언론이 제기한 자금 조달 우려와 관련 해 해명에 나섰다. 유동성 부족으로 산업 은행 등에 자금 조달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장윤근 대표는 "2017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뒤로 선박 건조를 자체 자금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자금 부족 문제는 아직 없다"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주한 선박과 관 련해 선수금환급보증도 신속하게 발행되 고 있다"며 "올해 들어 발행되지 않아 수주 가 취소된 사례는 없다"고도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행암공장 매매계약 을 통해 비영업자산 전부를 매각하고 이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석유회학 제품 운반 선 3척의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받았다. 올 3월에는 삼강엠앤티를 대상으로 방산 부문 을 양수하는 등 경영 효율성 개선에 한창이 다. 한편 회사가 전날 발표한 3분기 매출액 은 전년 동기 대비 22.94% 증가한 2637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276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 역시 503억 원으로 고대영 기자 kodae0@ 흑자전환했다.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국민, 좋아요♥ 보험, 좋아요♥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mark>에</mark>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KB 간편청구서비스

KB 종신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한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8649호(2019.07.08)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2195호 (2019-07-09)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 금융타워 www.kbli.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손해보험 | KB생명보험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 다섯곳 중 한곳은 '공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A 지식산업센터는 2015년 문을 열었다. 분양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알짜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이 지식산업센터엔 4년째 입주 기업이 한곳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공급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당국이 승인한 지식산업센터는 1109곳이다. 최근 5년 동안(2014년~2019년 10월)에만 472곳이 새로 승인받았다. 특히 서울성동구와 구로구, 금천구 등은 지식산업센터의 메카로 꼽힌다. 최근엔 경기 시흥시와 남양주시 등 수도권 신도시에도 지식산업센터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인 경제만랩의 오 대열 리서치팀장은 "역대 최저 수준의 기 준금리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더

부동산 규제·세제 혜택에 관심↑ 투자 잠재력 높아 대형사도 참여

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까지 3년 연장되면서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몇 년 전부터는 투자 잠재력에 주목한 대형 건설업체들도 잇따라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A 지식산업센터처럼 오랫동안 공실(빈사물실)에 시달리는 등 공급 과잉 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단지공단은 지식산업센터 198곳이 공사를 끝내고도 입주 업체를 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지식 산업센터 다섯 곳 중 한 곳은 사무실을 놀 리고 있다는 얘기다.

공실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지식산업센터의 핵심 타깃은 중소기업이 나창업기업인데, 이들의 수요는 공급에 훨 씬 못 미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지산 앤의 박희성 대표는 "기업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이 입주를 하지 않고 공실 문 제가 생기다 보니 분양률도 떨어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늘어 났다. 가격 변동도 심하다"며 "위험 수준에 있는 지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지식산 업센터들 간 수요자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



고 있다. 구로구 등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지역에선 구축 센터의 고민이 깊다. 기업 들이 쾌적한 환경을 찾아 신축 지식산업센 터로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소형 지식산업 센터나 교통이 열악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도 기업이 빠져나가 골치를 앓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들은 기업을 붙잡기 위해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무실 크기 를 늘리고 센터 안에 영화관이나 도서관ㆍ 체육관 등 입주 기업을 위한 편의시설을 들여놓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크기가 커 질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동안에만 연면 적 10만 ㎡ 이상 대형 지식산업센터 14곳

최근 5년간 472곳 새로 승인받아 공급 과잉에 198곳 사무실 놀려

이 승인을 받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승인된 대형 지식산업센터 (16곳) 수와 비슷하다. 오 팀장은 "다양한키 테넌트(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핵심점포)와 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특화된 지원시설과 테마를 도입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복합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면서 규모 자체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면 공급 과잉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며 기업 등이 많지 않고 외진 지역에 있는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고 조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지방이전으로 빈 공공기관 새 주인 찾는다

국토부, 8328억 규모 부동산 매각

국토교통부가 지방으로 회사를 옮긴 공 공기관이 가진 8328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각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19년 제2차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 투자사, 금융사 등에 종전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종전부동산의 새주인을 찾기 위해서다. 종전부동산은 본사이전 등으로 비게 된 공공기관 청사와 토지 등을 말한다.

이번에 매각이 추진되는 종전부동산은 18건, 부지 면적과 건축물 면적은 각각 48 만7222㎡. 27만1176㎡다. 공시지가는 약 8328억 원으로, 국토부는 이들 부동산을 1조5394억 원가량에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의 대어(大魚)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옛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이다. 국토부는 LH 사옥의 매각 예정 가격으로 4492억1200만 원을 책정했다. LH 사옥의 부지, 건축물 면적은 각각 3만7997㎡, 7만2011㎡다. 다만 LH가 2009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10년째 구매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에 매각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부지가 용도 제한 등에 묶여 있어 사업성이 낮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토부는 종전부동산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종전부동산을 소유한 공공기관이 재 량껏 매각 가격을 인하하거나 분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박종화기자 pbell@

규제 피한 수도권 분양 몰려… 연내 2.3만 가구 대기

· 〈비조정대상지역〉

경기 5700·인천 1만7000가구 추가 규제 우려에 밀어내기 분양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연내에 2만2908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서울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제 적용을 받게 된 데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면 추가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엄포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까지 전국 비조정지역 중 50곳에서 총 4만 6268가구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중 경기・인천 22곳에서 2만2908가 구가 분양된다. 경기도에 5769가구가 나오고, 나머지 1만7139가구가 인천에 몰려 있다.

인천에서는 SK건설이 영종하늘도시 에서 1153가구 규모의 '운서 SK VIEW 스카이시티'를 내놓는다. 대우

수도권 비(非)조정지역 연내 주요 분양 아파트

위치	단지명	총 가구수	전용면적(m²)	시공사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3236	59~84	코오롱글로벌
경기 안산시 백운동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레	1450	49~84	고려개발
인천시 중구 운서동	운서 SK VIEW 스카이시티	1153	77~84	SK건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 트루엘 파크	336	59 - 74	일성건설

건설은 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4805가 구 규모의 '인천한들구역 푸르지오'를,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은 안산시 백운동 일대에서 'e편한세상 초지역 센트럴포 레'를 공급한다. 이 단지 역시 1450가 구 규모의 대단지다.

시흥시 정왕동에서는 호반건설이 5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과천·성남·하남·, 구리·광명시, 동탄2,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광교, 용인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고양시와 남양주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한대부분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

조정 대상 지역이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면 1순위청 약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도 없 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광역시와 경기 도의 경우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비교 적 짧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인기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되면 쏠려 있던 유동자금이 비조정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양을 받는 데 부담이 덜한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새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효기자 sorahosi@



"근무일 비례 상여금도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확정 땐 남부발전 등 인건비 200억 추가 지급해야

한국남부발전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 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하급심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 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한국남동 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 서부발전 근로자 3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 확정되면 남부발전(118억 원), 남동발 전(90억원),동서발전(3억원),서부발전 (1억9000만 원)은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200억 원을 인건비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들 발전사는 기본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 환경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 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기본상여금 등도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를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재산 정해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 송을 냈다.

회사 측은 기본상여금 등은 고정적 • 일 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정 근로의 대 가로 볼 수도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건강관리비 · 교통 · 급식 · 난방보조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 으로 근로의 대가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면 노동조합과 합의한 임금 수준을 상회 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 민 전체의 피해가 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 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기본상여금에 대해 근태 계산 기간 중 근무 일수에 비례해 기 본상여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다를 바 없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려금과 건강관리 비, 교통 · 급식 · 난방보조비도 매월 일정 액이 지급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더불어 "발전사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 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 롭게 되는 등 신의칙 항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한편 대법원은 5월 한국남부발전 근로 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 최소한도 의장려금,건강관리비,교통 · 급식 · 난방 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회사 측 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용 기자 deep@





13일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새로 보급받은 패딩형 동계 점퍼를 입고 기 군인도 패딩 입는다 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10월부터 경기·강원 등 전방지역 병사 12만4000명에게 패딩형 동계 점퍼를 보급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방부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문제없다"

항소심 재판부 "중복지원 금지 정당" 교육청 손 들어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 교법인들이 일반고와 선발 시기를 일원화 한 교육당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 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도 패소했다.

서울고법행정11부(재판장김동오부장 판사)는 13일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 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자사고・국제고・외고가 우 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 육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아울러 자사고·국제고·외고 지원자 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이에 자사고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된다며 소 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헌재에도 시행령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 · 일반고 중복지원 을 금지한 조항 등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공립학교보다 학생 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 함된다고 볼 수 없고, 고등학교 입시 경쟁 을 완화하는 정책의 공익이 사립학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며 자사고 측의 청 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종용 기자 deep@

"더 좋은 곳 알아봐라"… 대법 "일방적 해고"

"사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 원심 파기 환송

사장으로부터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듣지 않았어도 해고로 볼 수 있다는 대법 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종업원 A 씨 등 4명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며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현재의 매출로는 홀 1, 주방 1, 파트 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5일까지

급여를 더 주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 날 B 씨와 회의를 한 A 씨 등은 '다 른 일자리를 알아보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식당을 떠났다. 이후 A 씨 등은 지 방고용노동청에 B 씨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었고 "해고예고수 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 기했다.

1 · 2심은 "B 씨가 A 씨 등 4명 '전원'을 해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해고예고 수당의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이 사건에서 는 누구도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A 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 사에 의해 A 씨 등 4명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 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 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 등 4명 모두 그 만두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사직을 만류하지 않았고, 이들이 사직한 당일 원 고 등 4명 전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상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취업공고를 올렸다"며 "이는 4명을 모두 해고할 의사 가 없었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 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방향하기 싫어 공안해요" 언더그라운드의 정설 신촌블루스를 만든 남자 '엄인호'



1김(현실)이가 그리운 11월이는 전통과 현대를 위한 창작으로 운명적 예술세계를 수놓다 식그릭 아티스트 손인숙 작가



'나 같은 사람 한 명품은 있어야죠" 総のの引 감병조

티핀티판 산책 청라언덕 넘어 김광석골목까지,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대구 청막언덕으로 가는 길에 가곡 동우생각을 총알가겠다. 1분의 교향약이 올려 퍼지는 청라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한나라꽃 향내 앞으며 …" 어릴 적 배운 노래인데도 노랫말이 또렷이 떠올랐다. 우리나라 근대 풍경을 묘사한 백화 골목을 지나자 아트막한 언덕이 나타났다. 청의언덕은 상상했던 것만큼 이름다웠다.

고고가게

지하철로 떠나는 오래된 맛집 이름하야 고고가게를 지난 5개월에 걸쳐서울, 인천·경기, 부산 대구, 대전으로 나눠 총 5곳을 소개했다. 맛과 추억, 음식 냄새와 사람 냄새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던 그곳들을 다시 한 번 호망해보려 한다. 그동안의 여정을 총망리하며, 특별히 해외 독자와 식객들을 위한 영문 버전도 함께 준비해왔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노화 예방에 좋은 녹차 활용 레시피

상속과 증여 돌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가업승계 최신 트렌드와 전략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예원 손인숙 작가 재로운 장료로 한국예술의 언디그라몬드의 전설 신도분주스를 만든 날지 '절안호'

COVER STORY 인생茶 한 잔 하실래요?

PARTL 차 입문 - 차근차근, 차의 세계에 다가가기

PART2. 차의 잔실 - 산야초 전문가 전문희와 다담(系統)하다 맞춤 차 분석 - 취향 저격, 내게 맞는 차 고르기

PARTA. 체질별 한방차 - 내 몸이 茶茶 좋아지는 건강 한 모금

캠핑 체험 1박 2일 - "평주와 다배茶面/함까요"

PARTS. 형량 찻집 순례 - 차 맛을 이는 사람들이 찾아낸 영소 5茶5色





인생의 쓴맛 안엔 보약도 들어 있다

애석한 사실 하나 귀띔하고 그의 귀농 이미기를 시작해야겠다. 귀농 7년 차. 농서도 살림도 어떤 자리 잡힘 만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문기운(60) 씨는 아직 가시발길을 걷고 있다. 자나 깨나 전땀을 흘리는 것 같다. 화실을 쏘았으나 여태 과녁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일쑤 귀농우수사레'로 치지만, 사실은 실패 사례에 가깝다는 게 아닌가.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6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조화… 아직 풀지 못한 숙제"

기획인터뷰

유명 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 분야의 정점에 오른 여성이 자신이 그 위치까지 가는 길에 생긴 가족의 희생을 미 안해한다. 그는 가정을 지키며 일을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숙제라고 말한다. 여성 후배들에게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라는, 어찌 보면 허황될 수도 있는 조언은 하지 않는다. 본인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가족의, 아이의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다. 그 이후에 여성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과 가정에 대한 균형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경험 섞인 다독거림을 내놓는다.

4일 한국 최초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FTA)이자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구축되는 새로운 통상 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한국 통상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순 간의 중심에 한 여성 공무원이 서 있다. 여 성 공무원으로 최초 타이틀을 몇 개나 보 유한 한국 통상 분야의 수장인 유명희 (52)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유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해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이번 RCEP 협정 타결까지 굵직한 협상을 직접 몸으로 부딪쳐 온 '최고의 협상 전략가'다.

◇파격 인사의 아이콘··· 산업부 70년 역사 '1호 여성 차관' = 유 본부장은 파격 인사의 아이콘으로 유명하다.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1992년 총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지켜보며 국내 통상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5년 통상산업부로 옮기면서 줄곧 통상 업무를 맡았다.

통상 업무를 하려면 법률 지식이 꼭 필요 하다고 여긴 그는 1999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로스쿨 3년 과정을 끝낸 뒤 미국 뉴욕주 와 워싱턴에서 변호사 자격증도 땄다.

2005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과장에 발탁됐다. 당시 외교부 과장급이 1986~1988년에 공직 생활을 시작한 외시 20~22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외시 26회와 같은 기수인 유 본부장의 과장 임명은 4~6년은 빠른 파격 인사였다.

이후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지난해 1월 통상교섭실장으로 승진했다. 산업부 역사 70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1급 여성 공무원이 탄생한 것. 당시 업무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버트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미 FTA 개정 협상 수석대표인 유 실장의 실력을인정, 협상 중 농담으로 유 실장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후문은 유명하다.

그는 올해 2월 차관급이자 대외적으로 는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오르며 다 시 한번 유리천장을 깼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떠나 정말 치열하 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약력이다.

◇"가정과 일을 함께한다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숙제" = 궁금했다. 가정과 아 이가 있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치열 하게 살 수 있었는지가.

11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그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답변은 신선했다. 흔히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키기 위해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었다.

유 본부장은 "공직생활 초창기에는 가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여성 후배들에게 허황된 조언 대신 경험 섞인 충고를 했다.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70년 만에 女 최초 1급 승진 '파격 인사의 아이콘' 철저한 준비·논리 등 USTR 대표도 인정한 협상 전략가

"가정 희생으로 얻은 시간 한순간도 쓸데없이 보낸 적 없어 미래 통상전문가 양성 위해 노하우 전할 수 있는 일 하고파"

에 대한 노력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며 "처음이라는 시기는 누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평판을 처음 쌓는기간으로 힘들더라도 더 일에 적극적이고열심히 해야 학습 속도도 늘어나고 본인의평판도 더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는 정말 애가 입원을 했을 때도 내색하지 않고 계속 출근과 야근을 했을 정도로 일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주려했다"고 회상했다.

유 본부장은 "내 노력이 쌓여 어느 정도 평판을 구축하는 시기, 개인차가 있겠지만 3~5년 정도가 지나면서 자신만이 알 수 있 는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을 한 지 28년 되고 가정을 가진 지도 28년이 됐지만 지금도 힘들 때 가 있다"며 "통상이라는 게 공부를 계속해 야 해서 가정과 균형을 잘 이룬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숙제로 여겨진 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전 아직도 여자 후배들한 테 처음 시작할 때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승부를 해라. 그게 쌓이면 그걸 바탕 으로 가정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이 이해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할 순간을 포기하고 얻은 시간, 최선을 다해 보내야 = 이렇게 말하는 그도 아이가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선다고 얘기한다.

유 본부장은 "사무관 시절 큰아이가 어린 이집을 다닐 때 엄마가 제일 안 오는 아이 들을 모아서 지하방으로 내려갔다. 근데 애 가 그때가 그렇게 싫다고 하더라. 한번은 지하방으로 내려가다 토하기도 했다. 어느 날 조금 일찍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지하방으로 내려가는 중에도 문만 쳐다보 고 있더라.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 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며 "그 모습을 보 면서 아이의 희생이 값어치가 있도록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 경험 때문일까. 유 본부장은 합리적· 효율적 업무 문화를 계속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나의 시간도, 젊은 후배들의 시간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해서 나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게 되더라"며 "합리적·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조직도 건강해지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 사람의 통상전문가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투자, 사회에 환원하고파" = 공무원 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유본부장은 "우리나라 국기를 앞에 두고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하는 게 통상 업무인데 한 사람의 통상 협상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 서 국가가 투자한 시간을 생각하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에 충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쌓고 익히고 한 것들이 국가가 투자한 것과 제가 노력한 것 이 합쳐진 것으로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됐 건, 어떤 기구에서 봉사를 하는 일이 됐건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농업은 계속 희생만… 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聯 사무부총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 2~3차례 정부 협의, 면피용 그쳐 농업이 과연 농외소득 없이 사회안전망 갖췄느냐를 봐야

11일은 제24회 농업인의 날이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뤄져 있는점에 착안해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해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농업계에서는 가장행복한 날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서용석〈사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한농연) 사무부총장은 11일 이투데이와 만나 "농업인들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도시화, 산업화를 위해 많이 희생했지만,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고 도농 소득격차는 6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석 부총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포기 선언과 관련해 "정부와 2~3차 례 협의를 했지만 대책 마련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면피용으로 했다"며 "기획재정부 차관과 간담회를 하기 전까지 사실상 없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WTO 개도국 포기,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알섭·RCEP)이 농업에 크게 영향이 없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 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수입물에 대한 관 세가 어느 정도 다운될 것이냐가 나와야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 정부는 쌀은 보 호한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 부총장은 "농업이 사회적 안전망을 갖췄느냐를 봐야 한다"며 "스위스는 헌법 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 회의원 100명이 비농업인이면서 농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서 농업이 온전하게 제대로 평기받고 대안 이 마련돼 있느냐"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총장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럽형과는 매 우 다르다"며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가산형 직불금 체 재를 얹어 저소득 농업인이 일정 정도 소 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



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참고로 스위스는 직불금을 1년에 5000만 원을 준다. 우리는 이런게 열악하다 보니 농업인이 어쩔 수 없이 농외소득 통해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서 부총장의 생각이다.

서 부총장은 현재 농업계를 제대로 대변 하지 못하는 국회 구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이하 농해수위)에 여당인 더불어민 주당 의원들 가운데 정작 농촌 출신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6명인데 서삼석, 오영훈, 박완주 의원 정도가 농촌 출신으로 분류되고 그나마 박완주 의원 지역구는 사실상 도시지역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특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4월 발족한 농특위는 농어업인소득의 양극화 및 농어촌 고령화·공동화,도시·농어촌 격차 심화 등의 문제해결과공익적 직불제 개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 부총장은 "농특위 출범 전에 요구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못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부처 간 거버 넌스 역할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농특위 경쟁상대가 농식품부가 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농특위가 크게 내세우는 게 농정 틀을 전환하자는 것으로 농식품부예산 50%를 직불금으로 바꾸자는 건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도 위원장에 대해서도 "농업계보단 시민사회 쪽에 가깝고 너무 민간위원 위주로 인사가 이뤄져 농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방송인 수잔 샤키야·마크 테토 등 외국인 18명에 서울시 명예시민증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서울시 명 예시민'이 됐다.

서울시는 14개국 18명의 외국인을 '2019년 서울시 명예시민' 으로 선정하고, 1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이방인으로서 겪은 다문화사회의 고충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의 공존과 문화의 깊이를 더한 명예시민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졌다.

국내에서 다양한 방송활동에 출연하며 서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방송 인 수잔 샤키야(네팔·왼쪽 사진) △크리 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 △마크 테토(미 국・오른쪽) △파비앙(프랑스) 등도 대사 관 및 서울시민의 추천으로 최종 선정됐 다. 이어 △김 에델트루트(독일) △응우 옌 민 프엉(베트남) △안나 쿠수마(인도 네시아)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콜롬 비아) △왕육성(대만) △알프레드하르트 (독일) △하르트무트 코쉭(독일) △마르 다리 타티아나(몰도바) △콜름 플라나간 (아일랜드) △리 미하엘라(체코) △앤드 류임(캐나다) △무스타크마지드(파키스 탄) △아만 울라(파키스탄) △벤자맹 로 앙 주아노(프랑스) 등이 포함됐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각국 대사 관, 공공기관 단체의 장, 사회단체장,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 천받아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최 종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선정한 다. 설경진 기자 skj78@

수자원公, '품질경영' 대통령 표창 물관리일원화 사업구조 개편 인정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 스에서 열린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참석해 공공부 문 국가품질대상을 수상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 사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 등의 경영성 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 가품질대상 공공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 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 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품질경영대회 는 제조와 서비스, 공공, 교육 분야 등에 서 품질경영과 국가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을 발굴하고 포상하 는 행사다.

수자원 공사는 이번 대회에서 '리더십' 과 '경영성과'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물관리일원화 시행에 따라 기존의 개발 위주 사업구조를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물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위주로 전환해 성과 창출 노력을 인정받은 것.

이학수 수지원공사 사장은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김현준 국세청장 "소규모 법인 세무조사 부담 축소" 남동산단 찾아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조사 제외" 밝혀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한국산업단지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국가산 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들 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 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히 협조 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시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립금속 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전문 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의해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점 등을 고려,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 상세히안내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중소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에 대해 "일자리



김현준(앞줄 왼쪽 네번째) 국세청장이 13일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 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세청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 를 적극 실시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 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 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게시판

산악인 엄홍길, 한적 '대표 홍보대사'에



대한적십자사(한적·회장 박경서·사진 왼쪽)는 산악인 엄흥길〈오른쪽〉대장을 대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 다. 엄 대장은 2012~2018년 한적 서울지 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생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했다. 2015 년 네팔 대지진 당시에는 긴급구호단 구호 대장을 맡아 재난 현장에서 네팔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했다.

대한병리학회 차기 이사장 이연수 교수

이연수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교수가 최근 서 울더케이호텔에서 개최 된 제71차 대한병리학 회가을학술대회 평의원 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FT 131년 만에 첫 여성 편집장 탄생

외교·국제보도 전문 룰라 칼라프 내년 1월 취임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 (FT)에서 1888년 창사 이래 첫 여성 편집장이 탄생한다.

FT는 12일(현지시간) 라이오넬바버 편집장이 2020년 1월 1일 자로 퇴임하고, 후임으로 룰라 칼라프〈사진〉 부편집 장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발표했다. 편집 장 교체는 14년 만이며, 칼라프는 FT의 131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편집장이 된

다. 칼라프는 레바논 출신으로 미국 컬 럼비아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 공한 후 1995년 FT에 합류했다. 북아프 리카 특파원과 중동 부장 등을 거쳐 2016년부터 FT의 부편집장으로서 보도 전반을 관할하고, 외교·국제 문제를 중 심으로 하는 칼럼을 써오고 있다.

그의 남다른 국제 감각은 전쟁을 통해서였다. 내전이 한창이던 레바논에서



태어난 칼라프는 어린 시절 전쟁을 피해기족과 함께 여기저기를 전전했다. 전쟁상황을 접하기 위해라디오를 떼어놓을

수 없었던 그는 "정보의 소중함을 실감 하며 자랐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칼라프는 편집장 승진 인사에 "영광이다"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론사를 총괄하게 돼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22세와 10세 두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하다. 배수경기자 sue6870@

▋부음

▲박광순(대홍기획 전 대표이사) 씨 별 세, 이혜숙 씨 남편상, 박보경·보미 씨 부 친상, Dan Zhao 씨 장인상 = 12일, 삼성 서울병원 영안실 15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2-3410-3151

▲최해수 씨 별세, 최성식(우성산업 대표)·영만(현대그룹 그룹커뮤니케이션실부장)·영선·승재·영화 씨 부친상, 김미경·최은진 씨 시부상, 이석욱(중앙고속)·최영철·한성곤 씨 장인상 = 13일, 대구의료원 국화원장례식장 301호 VIP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53-560-9580

▲최영훈(금융감독원 팀장) 씨 별세, 문 선정 씨 남편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장 례식장 14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15분, 02-3410-6923

▲문기수(한국프로골프협회창립회원) 씨 별세, 문성욱(한국프로골프협회 투어 프로) 씨 부친상 = 12일, 경기도의료원 파 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7 시, 031-940-9370

▲임헌용(전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 이 사장) 씨 별세, 임재수 씨 부친상, 채신일 (전 대우건설 이사)·김남철(대전만년중 교사) 씨 장인상 = 13일,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42-280-8181

▲이성숙 씨 별세. 진윤주·윤선(삼표시 멘트 HR팀)·윤희 씨 모친상, 이준규 (CBS 정치부 기자) 씨 장모상 = 13일, 가 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5 일 오전 6시30분, 032-517-0710

▲이용인 씨 별세, 홍호식(㈜HB물산 회장)·완식(㈜성우마린 대표이사) 씨 모친상, 채봉기(대영엔지니어링 전무) 씨 장모상=11일, 서울이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02-3010-2230

지본시장 속으로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2020년 글로벌 경제 상황은 소순환 회복 국면으로 판단된다. 소순환 사이 클이란 재고의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단기적 경기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데 3~3.5년의 주기를 보인다. 쉽게 말 하면 1년 반 정도의 경기 확장국면이 나타난 이후 1년 반 정도의 경기 수축 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 다.

2020년 미리 보기

제에 대한 그림을 그려 봐야 할 때이다. 2020년을 생각해 보기 전에 2019년 경제 상황을 복기해 보면 한마디로 좋지 못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민간소비는 어느 정도 늘 어났지만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반도 체 경기가 좋지 못하여 수출도 부진하였 다.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된 점도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즉 'R (Recession)의 공포'가 제기되었고 이

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미국

을 비롯한 약 19개국의 중앙은행들은 정책

금리를 인하하였고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리기도 하였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글로벌 경

2020년 글로벌 경제 상황은 소순환 회 복 국면으로 판단된다. 소순환 사이클이란 재고의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단기적 경기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3~3.5년의 주 기를 보인다. 쉽게 말하면 1년 반 정도의 경기 확장국면이 나타난 이후 1년 반 정도 의 경기 수축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글로벌 경기를 소순환 회복국면으로 보

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재고 사이클이나 유동성 여건 등 을 고려할 때 소순환 회복세가 예상된다. 대규모 재고를 축적했던 중국에서 재고 조 정 과정 이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재고 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견고한 소비를 바탕으로 도소매업 재고순 환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있어 재고 사이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회 복 가능성에는 풍부하게 공급돼 온 유동성 도 힘을 보태고 있다. 통화 증가율이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하여 과잉 유동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 이 어 미국, 중국도 과잉 유동성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글로벌 경기선행지수를 보더 라도 소순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글로벌 경기선행지 수가 반등할 경우 시차를 두고 경기는 저 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글로벌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 으로 이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글로벌 투자는 소비에 비해 과소한 수준이 지속하고 있다. 소비가 양호하였던 것은 고용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저 금리, 저물가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높았 기 때문이다. 이 경우 투자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였다. 미중 무역갈등이 그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소비가 양호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 등이 완화되면서 과도하게 줄어든 투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중 무역갈등은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적 합의는 어렵겠지 만 단계적 합의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몇 개월 전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 선을 앞둔 상황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기보 다는 완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 국의 경우에도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고 아 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계 기로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가 소순환 회복국면에 진입 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이머징 국가들의 기여가 클 것으로 보인다. IMF의 경제성장

률 전망치를 보면 글로벌 경제는 2019년 3.0%에서 2020년 3.4%로 성장률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인도, 중남미, 중동 등 이머징 국가들 에서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국의 경우 2020년 성장률은 2019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대외여건 개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 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주식에 무게를 둬 야 할 것이다. 소순환 회복이 예상되기 때 문이다. 또한 채권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이 시정되는 과정에서 주식으로의 자 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경기 침 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미국에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 비중이 높기 때 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선호를 유지할 필요 는 있다. 이와 함께 이머징 국가의 성장 기 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이머징 국 가로의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긴 안목에서 는 성장하는 산업과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 한 투자, 리츠와 같이 지속적 소득이 발생 하는 자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CEO 칼럼

유희숙 1492피앤씨애드 대표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소 벤처기업부 사단법인 한국재도전중소기업 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희숙이라고 합니다.

요즘, 갑자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위기 에, 어디에 그 애로를 호소할 곳조차 없다 는 중소기업가들의 연락을 자주 받습니 다. 하지만 저희 협회 또한 안타까운 중소 기업 대표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얘기할 곳 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을 헤쳐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경황이 없기 때문에 수면 위로 그 경각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위기의 중소기업가들의 존재감을 어느 누 구도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민심을 읽기 위해 시장에 가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산 명시 선서 를 하는 재판정이나 회생법원을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서,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해 하나의 재산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선서하러 와야만 하는지 그 피끓는 사연들을 직접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될 것이다.

성 소수자, 이주 여성들을 위한 소수 인 권 또한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제 활성화 의 최일선에 섰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신용 불량이란 낙인이 찍힌 숫자가 가족 구성원 을 포함해 최소 600만 명에서 1000만 명 이 넘는데(2012년 기준. 현재는 훨씬 그 수치가 높으나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음), 말 한마디하기 조심스러운 경제적 죄인이라 하여 이들이 국민이 아니며 유권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 부처별로 이들을 위한 재기지 원책이 실시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한 재기지원책이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 포 용정책인지, 단기 성과 실적을 위한 백화 점식 정책 나열에 불과한 건지, 이들을 통 해 또 다른 예산 먹거리를 확보한 자들에 게 유리하게 설계된 정책인지 따져볼 필요 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한해 우선적으로 실시된 기 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폐지는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기업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재도전 정

대표자라도 50% 이상 대주주이면 은행법 에 의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현실 이고, 개인회생이나 기업회생을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호도하지만 모든 영역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기득권층에 의해, 절 대 회생에 성공할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 이고, 또 다른 신용불량자를 양산해내는 게 지금의 재도전지원책일 뿐입니다.

온갖 혁신위 등에서 잘되는 기업 상위 10%만을 위한 제도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 산하며 박수치고 있는데, 시장 논리를 따 를 수밖에 없는 민간 단체는 그렇다 치더 라도, 위기의 기업을 살릴 생각보다 성공 을 함께 나누기 더 바쁜 정부 기관들이 여 기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는 게 더욱 절망 스럽습니다. 대통령님께 핏빛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편지 를 내려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간 중 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 한 정책 구현에 홀로 고군분투해왔고 많은

책은 금융위, 산자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전 부처가 똑같은 위기 의식으로 합쳐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한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 세 가지만 제언드리고자 합 니다. 첫째, 채무불이행, 즉 신용불량의 낙 인을 현재의 3개월에서 1년으로 유예해 주 십시오. 둘째, 현재 금융권의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셋째, 중소기업 의 업종별 다른 계열사 설립 장려와 지원 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독대를 잘 하지 않는 걸로 알지만, 위에 열거한 세 가지 방안을 대통 령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정교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리스크 큰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재도전 기업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알고, 희망은 기적처럼 낙인의 처참한 흔적을 지워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격무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가시는 걸음 마다 복된 기록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대 통령님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장 파울 명언

"사랑은 여자의 섬세함을 줄이고 남자의 섬세함을 늘인다."

독일 문학사상에서 G.E.레싱이나 괴테 와 비견되는 소설가. 그의 문학론의 총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학 입문'은 독일 낭만주의의 귀중한 문헌이다. 오늘 그는 세상을 떠났다. 1763~1825.

☆ 고사성어 / 조장(助長)

자라도록 돕는다는 뜻이지만, 조급하게 키우려고 무리하게 힘들여 오히려 망친다 는 경계를 나타낸다. 원전은 맹자(孟子) 공손추상(公孫丑上). 맹자가 제자 공손추 에게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우려면 마 음을 도의(道義)의 성장에 따라 서서히 키 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송나라 농부의 우화 로 비유했다. 한 농부가 곡식의 싹이 더디 자라자 싹의 목을 뽑아주고 아내에게 "내 가 싹이 자라는 걸 도와주고[助長] 왔소" 라고 했다. 나가 보니 싹이 모두 뽑혀서 물 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 시들시들하게 말라 있었다.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서를 보낼 때 최 소 200쪽짜리 사업보고서를 출력해 같이 보 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통지서 발송 전에 외부감사를 마친 회사는 몇이나 될까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실무 담당자 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업 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 론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상장사의 주주총 회 내실화, 이사 · 감사 등 임원 구성의 투 명화다. 반대할 여지가 없는 취지다. 개정 안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보 시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 등을 의무적으 로 제공해야 한다. 제공 방법도 문제지만, 사업보고서를 함께 발송하려면 주총 2주 전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공시 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기자수첩



이 정희 자본시장1부/lih@

'탁상공론' 상법 시행령 개정안

그러나 문제는 세부 개정안을 두고 실효 성에 의문이 커지면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불필요한 간섭으로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 다. 기존 과정 대비 감사기한이 일주일가 량 줄어들면서 보고서 작성 기한에 초점을 맞추다가 부실 보고서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주주총회의 주주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02)799 - 2669

(02)799-2647

(02)799-2644

논설실

산업부

자본시장1부

주총일을 분산하자는 내용 역시 취지가 무 색하다. 대다수 기업은 주주명부 폐쇄일과 배당기산일은 12월 31일로 일치시킨다. 4 ~5월 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3월 주총에 맞춰진 기업의 결산업무를 대폭 손봐야 하 는 데다 상법상 규정된 배당 관련 기준과 도 어긋날 수 있다.

지정감사인제도로외부감사인의감사수

수료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부감사를 빠르게 끝내야 한다면, 비용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간 축소에 대한 부담에 이어 수수료 인상까지 벌써 우려스럽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정관상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도록 정의한 기업들은 두 배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만약해당 사업보고서가 주주총 회에서 부결된다면, 다시 외부감사부터 진 행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미 공 시된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도 뒤따

오랜 기간 재직한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겠다는 취지 역시 동의한다. 하 지만 현실적 구인 문제와 개인정보 문제, 주총대란 우려 등이 겹치면서 효과보다 부 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주소

☆ 시사상식 / 언택트 마케팅

고객과 마주하지 않고 서비스와 상품 등 을 판매하는 비대면(Untact) 마케팅 방 식. 키오스크, VR(가상현실) 쇼핑, 챗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유동 고객이 많은 백화점과 쇼핑몰,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적 극 시행한다.

☆ 유머 / 아이는 부모의 거울

아이가 부모의 부부싸움을 보고 "이년, 이놈이 무슨 말이야?"라고 묻자 아빠가 "어른들이 여자, 남자를 부르는 소리"라고 얼버무렸다.

"이빠 엄마가 '이년, 이놈' 그랬어요" 라 고 아이가 일러바치자 할머니가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라고 했다. 아이가 무슨 말 이냐고 묻자 할머니는 "잘했다고 박수 친 다는 소리란다"라고 말했다.

얼마 뒤 유치원 '재롱이 잔치' 사회를 맡 은 아이가 낭랑하게 외쳤다. "이 자리 오신 모든 년놈들! 다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 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v.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정치경제부 자본시장2부

(02)799-2663 (02)799-2648 (02)799-2646

사회경제부 (02)799-2612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math>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논설실장 **추창근**

국제경제부 뉴스랩부

편집국장 김덕헌

(02)799-6741 (02)799-2637 (02)799-2664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02)784-1003 팩스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06900 서울시 동작구

멋있는 삶 연구소장

韓銀 책무, '금융안정'으로 바꾸자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또다시 한국 은행을 향해 '물기안정' 책무나 충실하라 며 직격탄을 날렸다. 1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이 자 리에서는 사실상 한 번 이상의 추가 기준 금리 인하도 주문했다. KDI는 지난달 말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 사점'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통 화정책은 금융안정보다 물기안정을 우선 해야 한다"고 일갈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KDI 출신 금융통화위 원인 조동철·신인석 위원의 논리와 판박 이다. 오죽하면 조동철 위원이 KDI를 조 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까지 세 간에 나돌 정도다. 조 위원은 8일 한국금 융연구센터 정책심포지움에 참석한 자리 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하면서 "제로금리가 꼭 기준금리 하한선은 아니다"며 날쌘 비 둘기(통화완화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 다. 그는 2016년 4월 취임 당시 "살찐 비 둘기라 날지도 못한다"며 비둘기파가 아 니라고 소개한 바 있었다.

범KDI 인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 한은법을 보면 한은의 설립 목적을 밝힌 제1조 1항에서 '물가안정'을 제1 책무(mandate·맨데이트)로삼고있 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물가(CPI)는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달성한 적이 없다. 이론대로라 면 물가목표치 달성을 위해 더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했었다.

그렇다고 이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우선, 이들은 한은법 제1조 2항 에 제2 책무로 '금융안정'을 명기하기 시

데스크칼럼





작한 2016년 이후부터 한은이 물가안정 보다 금융안정을 더 중시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와 맞장구치며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부풀었다. 연 5~6%대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신용은 2015년 10.9%, 2016년 11.6%나급증했다. 올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56조 원을 기록 중이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경제성장률(GDP) 대비가계부채비중은 올 1분기기준 92.1%에 달한다.이는 주요 43개국 대비 여덟 번째로 많은비중이며, 신흥국 중에서는 사실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이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로 이후 통화정책이 발목을 잡혔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인하할 필요가 있을 때조차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도진행형이다.

이들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의 규 제 등 미시대책에 맡기고, 한은은 거시경 제 상황을 감안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는 금리인하를 통해 가계 부채를 키운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무책 임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물가안정은 1970년대 유가 파동을 겪으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1980년대들어 도입한 제도다. 사실상 고물가 시절의 개념이다. 물가가 높을 때 금리인상을통해 뛰는 물가를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낮을 때 금리인하를통해물 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제로금리 내지 마이너스금리까지 갔던 주요선진국들에서 과연물가가 그만큼 올랐나를 보면 답은 바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물기안정만을 위해 통화 정책을 펴자는 주장은 법에는 맞을지 몰 라도 현 경제상황에는 역행하는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금통위와 한은이 너무 전통 경제학자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 판이 나오고 있다. 세상은 변하는데 구태 의연한 과거 이론으로 무장한 주류 경제 학자들로 채워진 금통위와 한은으로서는 새로운 사고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셈 이다. 마침 제로금리까지 가봤던 미국 연 준이 통화정책체계를 점검 중이다. 향후 경기 하강 시 실효하한 도달 가능성과 함 께,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에 안착하 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이 같 은 고민을 시작했다.

한은과 금통위도 제1 책무인 '물가안 정'에 대해 재검토에 나서야 할 때다.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심의 중심인 '금융 안정'으로 제1 책무를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2% 물가안정 이라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목표에 비 해, 금융안정은 그 정의가 모호하다고 말 한다. 다만 그 기준은 새로운 논의의 장에 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사고로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할

 때다.
 kimnh21c@

사설

제조업·30~40대 일자리 늘어야 고용개선이다

10월 취업자가 2750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1만9000명 늘 었다. 8월(45만2000명)과 9월(34만 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큰 폭 증 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수치다.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좋아졌다. 15~64세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작년보다 0.5%포인트(P) 오른 61.7%로, 10월 기준 1996년(62.1%)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5%P 하락해 2013년(2.7%) 이후 6년만에 최저다. 청년실업률은 7.2%로 1.2%P 떨어졌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20.5%로 2.0%P 하락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 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시장의 뚜 렷한 회복세가 10월 고용동향에 반영 됐다"고 말했다. 외형적 지표로는 그 렇다. 하지만 내용은 속 빈 강정이 다. 작년 고용이 극도로 부진했던 기 저효과가 크고, 고용의 질적 개선과 도 거리가 멀다.

산업별 취업자는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만 1000명)과 숙박·음식점업(11만 2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인 제조업(-8 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5만 4000명) 등은 여전히 싸늘하다. 제조업 고용은 19개월째, 금융·보험업

도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1만 7000명이나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 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정을 쏟아 부어 만든 초단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다. 50대(10만8000명)와 20대 (8만7000명)도 늘었지만, 40대(-14만6000명)와 30대(-5만명)는 쪼 그라들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30대의 경우 고용률이 76.2%로 0.4%P 높아졌는데,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일자리는줄어들고,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치는 노인일자리로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근무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할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주당 1~17시간 근무의 초단기 근로자가 10월에 33만9000명증가하고,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18만8000명줄어든 것이 말해 준다.

고용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민간이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실속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것임을 예고한다. 기업활력을 살리는 획기적 대책없이는 고용개선도기대하기 어렵다.

구성헌의 왁자지껄



9월 17일 양돈업계의 재앙으로 꼽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 로 발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불안감이 높 아졌다.

하지만 이날 9시 증시 개장 직후 돼지 열병 테마로 묶인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 하기 시작했다. 개장 시각에 열린 정부 기자회견(첫 확진 발표)이 뉴스를 타면 서 주가가 치솟았고 개미(개인투자자) 들은 추격 매수를 시작했다. 이후 다른 지역에도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마다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테마주의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이 보는 악순환 이 반복됐다.

뿐만 아니다. 내년 총선이 5개월이나 남았지만 벌써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 역시 들썩이고 있다. 테마주를 가진 정치

테마주 찾아 헤매는 증시

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주가가 움 직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선거가 다가 오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인이나 이슈 의 움직임이 기업실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도 어렵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테 마주에 손댔다가 손실이 난 사례를 찾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테마주는 주로 시가총액이 작고 주식 유통량이 적은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력들의 주가 핸들링(?)이 쉽기 때문이 다. 사업 실적이 좋지 않고 주가가 저점에 있는 업체 역시 테마 세력의 타깃이 되고 있다. 사업이 잘되거나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회사의 주가는 테 마로 띄워도 '대박'을 치기 힘들다는 것을 세력들이 모를 리 없다.

공교롭게도 테마주들의 주가가 꼭짓점 에 있을 때 최대주주들이 지분을 터는 것 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최대주주가 주 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 다. 하지만 개미들은 최대주주가 언제 주 식을 팔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악 재를 맞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테마주들이 활개를 칠 때 마다 금융당국이 경고음을 내고 전문가들 도 주의를 당부한다. 하지만 개미들이 정 치테마주에 끊임없이 뛰어드는 이유는 '나만은 돈을 챙겨 나올 수 있다'는 자신 감 때문일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생각은 무모함 그 이상 도 이하도 아니다. 자금력이나 정보가 미 천한 개미들이 세력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어쩌다 운 좋게 한두 번 돈을 벌었더라도 그 돈이 오래갈 리 없다.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한다. 실적과 기업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 기는 허상이고 망령에 불과할 뿐이다. '혹 시나' 하는 마음에 테마주에 손을 대는 것 은 못된 세력에 자양분을 주는 것이다. 테 마주는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그 것이 당신의 눈물이 아니길 바란다.

carlove@

₹건강100세 가을힐링 산행 후 시작된 '무릎 통증'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 산을 찾는 이가 많다. 조용히 멋진 경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일상의 잡념과 고민은 말끔히 사라지고 자연에 동화되며 마음이 평안해 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무리한 산행을 하 다가는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어 스포 츠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반월 상 연골판 파열'은 산행을 즐기는 중·장년 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반월상 연골판'은 파열되면 체중이 바로 연골과 뼈로 향하며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앞 당기게 된다. 보통 축구나 농구뿐 아니라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 속도감 있는 스포츠 활동 중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퇴행적 변화로 기능이 약해진 중·장 년층에서는 산행뿐 아니라 앉았다 일어서 는 등 동작만으로도 '반월상 연골판'이 파 열될 수 있다.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면 무릎 안쪽에서 무언가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며, 시간이 갈수록 통증과 부종이 심해진다. 또한무릎이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나 잘 펴지

지 않는 '잠김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관절 사이에서 연골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이를 방치하면 퇴행성관절염 진행의 원인이될 수 있어 조기진단 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질환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도 회복 을 기대해볼 수 있다. 바로 '관절내시경' 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미세 절개를 통해 무릎 내부에 진입한 관절내시경은 관절 내 부의 구조물을 약 8배 이상 확대할 수 있 어 정밀 진단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동 시에 의료 기구를 통한 시술이 바로 시행 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후에는회복기간을거치고무릎운동 범위 회복과 근력 강화를 위한 재활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가을철 야 외활동전에는 관절의 충분한 스트레칭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장년층 은 하산 시 스틱을 사용해 무릎으로 가는 부담을 줄이는 것도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 이 될 수 있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DJSI 월드 지수 :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 지표

국내기업 중 유일, 아시아 통신사 최초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 12년 연속 편입!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건강한 기업 경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12년의 시간

그 노력을 인정받아 SK텔레콤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DJSI 월드 지수)에 12년 연속 편입되었습니다

> 최초가 이어져 최고가 되듯 SK텔레콤이 또 한 번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